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30호 【루계 제25839호】 주체106(2017)년 11월 26일 (일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화국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25일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사진앞에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꾸리기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삼지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욱 훌륭히 꾸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인민보안성 산하단위 로동자 한영심, 선경불장식연구소 로동자 리설은 들끓는 공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평양산원 의사 김정희, 체신성 부원 김영미는 혁명가유자녀답게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은정을 훌륭히 꾸리는데 이바지할 충정의 한마음안고 뜨거운 지성이 깃든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혁명의 성지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갈 일념밑에 인민보안성 산하단위 로동자 공정미는 건설장에 여러차례 찾아가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하였다.

경흥지도국 리은아는 백두산청년강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청년전위답게 영광의 땅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헌신하고있으며 국가검열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리승팡도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를 기증하였다.

삼지연지구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영광군인민보안부 산하단위 부원 황경호, 함흥철도국 함흥조차장객화차대 부원 김선녀는 공사를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평양자동화기구공장 종합진료소 의사 리광옥, 청진시 포항구역 포항식료공장 작업반장 안금희, 회창군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리경주도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시키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혁명의 성지를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적극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

여 러 나 라 에 서 결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가 11일 로씨야련방 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위원회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비서 알렉싼드르 그로모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가 13일 끼르기즈스딴의 비슈께크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끼르기즈스딴《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려사회 위원장인 끼르기즈스딴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아. 우쑤쁘바예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업적토론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가 14일 공산당《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로 엠. 아. 쑤라이낀 위원장과 에쓰. 아. 말린꼬비치 부위원장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해 소개선전하며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가 15일 로씨야련방 베네공산주의청년동맹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1비서 웨. 뻬. 이싸꼬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 로므니아 전국위원회가 15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족사회주의당 최고려사회 위원장 바셀레 오믈레아누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회고위원회가 15일 전로씨야페넌공산주의청년동맹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비서 뽀드조로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령도자회고위원회가 16일 수리아롱일사회주의자당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총비서 아드난 이스마일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 벨라루씨위원회가 16일 민스크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상설상무위원회 위원장 옐. 슈팔리니 꼬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회고모임을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

수산성에서 년간 물고기잡이계획 빛나게 완수

우리 당이 펼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갈 충정의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는 수산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일까지 수산성적인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이 103.6%로 넘쳐 수행되였다. 특히 도루메기잡이전투가 시작되여 짧은 기간에 수만t의 어획고를 기록하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수산성의 책임일군들은 수산부문에서 적극적인 어로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심장에 새기고 년초부터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갔다.

이들은 년간 출어일수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배수리계획을 철저히 집행하는데서 찾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하여 서해수산부문에서는 새해에 들어와 한달 남짓한 기간에 수백척의 고기배들에 대한 겨울철배수리를 전부 끝내고 지난해보다 앞당겨 어로전에 진입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치렬한 격전장으로 화한 서해전역은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뜨거운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서해의 중심어장에 해상물고기잡이지휘부를 기동적으로 전개한 수산성과 각 도수산관리국의 일군들은 지휘선들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집중과 분산을 배합한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패기있게 벌려나갔다. 동시에 단위별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어로전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한편 연유공급과 하륙작업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나갔다.

얼음장이 떠도는 날바다와 싸우며 신속히 중심어장을 차지한 서해안의 전체 수산사업소 어로공들은 불리한 날씨속에서도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각이한 어황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어로방법들을 받아들이고 고기배 척당, 기망당 어획고를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이였다.

결과 서해수산부문에서는 지난 6월 18일 상반년전투목표를 돌파하고 봄-어름철물고기잡이전투기간에는 년간계획의 81.6%라는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높이 뜻깊은 10월에는 년간계획완수의 승전고를 울리였다.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기 위한 수산부문 전체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과감한 투쟁은 지난 11월초부터 진행되고있는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는 우리 식 사회주의우월성의 상징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수산부문의 일군들은 풍천앞바다 중심어장에 해상지휘부를 정하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지휘관들처럼 모든 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나갔다.

《삼천리-1》호, 《대양산-1》호, 서호수산사업소의 630t급운반선들과 수백척의 고기배들이 총동원된 가운데 격렬한 어로전이 벌어지는 전투현장마다에서 결사관철의 함성이 높이 울려퍼졌다. 성일군들은 고기배들에 대한 과학적인 어황통보를 짜고들고 하륙롭프들의 능력을 높여 배들의 머무름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함경남도수산관리국, 강원도수산관리국의 전체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어장을 당의 사상관철전의 제1선참호로 여기고 광란하는 파도속에서도 굴함없이 당정책결사옹위의 항로를 이어갔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집중어로전에 진입한지 열흘 남짓한 기간에 1만여t의 물고기잡이성과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24일에는 높이 세운 도루메기잡이전투목표를 앞당겨 완수하고 수만t의 어획고를 기록하는 자랑을 떨치게 되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수산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지금 승리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갈 불같은 일념안고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심 학 철
사진 본사기자 신 충 혁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현대화실현에 박차를

함 경 북 도 체 신 관 리 국 에 서

함경북도체신관리국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체신현대화실현에서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최근년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백수십건의 크고작은 기술혁신성과들을 받아들여 체신설비와 자재의 주체화비중을 높이고 통신, 방송의 현대화실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수백km구간의 새로운 빛섬유케블공사와 설비들의 기술개건으로 도내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보장,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사업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자재, 설비에 의거하여 체신을 최첨단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도체신관리국의 책임일군들은 전국체신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체신현대화실현을 위한 투쟁을 방법론있게 전개하고있다.

책임일군들은 뚜렷한 년차별, 단계별목표밑에 자체기술개발력량을 강화하고 협동연구와 앞선 단위들과의 기술교류를 자주 조직하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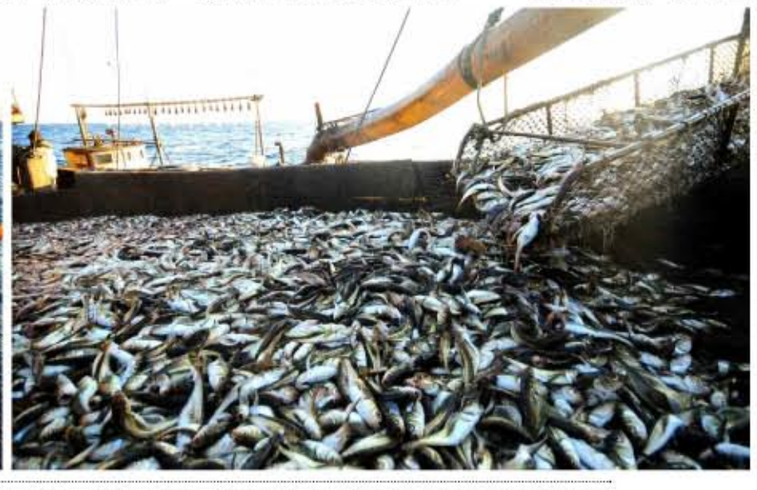
도내 체신부문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새 기술성과들을 부단히 확대하고있다. 기발한 착상을 내놓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벌리는 과정에 배일남, 강현일 동무들이 방송부문의 질적지표개선에 크게 이바지될 수자식텔레비죤중계기를 연구완성하였으며 전성일동무를 비롯한 많은 기술자, 기능공들이 체신설비운영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값비싼 체신설비들과 측정수단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 개발된 기술혁신성과들은 체신부문적인 과학기술발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도입가치가 큰것으로 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성과가 확대될수록 관리국의 책임일군들은 새로운 목표점령을 위하여 끊임없이 돌진해나가도록 대중을 고무추동하고있다. 모두가 새 기술의 주인이라는 관점을 대중의 가슴마다에 심어주며 이곳 책임일군들은 기술주도형의 일군이 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고있다.

자체기술개발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전시회와 발표회 등에 깊은 관심이 돌려진 가운데 실력이 높은 기술자, 기능공들을 여기에 참가시켜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있다. 이와 함께 체신현대화실현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모든 시, 군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이 수시로 진행되고있다.

관리국에서는 새 기술도입에서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평가사업도 의의있게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결과 최근 몇해동안에 도안의 체신사업이 한계단 높은 수준에 올라서고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보장에서 눈에 띄는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적지 않은 체신설비와 측정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성과가 확대되였다.

본사기자 전 성 삼



년간 인민경제계획 지표별로 수행

공작기계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기계공업성 공작기계공업관리국아래 여러 공장들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계획수행기간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계공업성의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선 로동계급의 앙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첨입식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각지 공장들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하면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수행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갔다.

구성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은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원쑤격멸의 무기와 포탄을 생산하던 전화의 군자리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맹렬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여러 종의 공작기계생산을 지난 10월 8일까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에서는 말은 공작기계생산과제를 수행하는 긴장한 속에서도 이동식벼랑곡기를 제작하여 여러 농장들에 보내줌으로써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만경대공작기계공장과 가당기계공장의 로동계급도 올해 공장앞에 말겨진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지표별로 완수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련일 들끓는 생산전투를 벌리였다. 이 공장들의 로동계급은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총폭발시키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부족되는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생산을 중단없이 벌림으로써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빛나게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문천발브공장과 평양연마석공장의 로동계급도 지난 10월 8일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각각 102%, 119%로 빛나게 완수하였다.

기계공업성적으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공작기계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 날이 감에 따라 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평양연마석공장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연마석제작에 쓰이는 원료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생산에 리용함으로써 공장앞에 말겨진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원산통풍기공장, 평양베아링공장에서도 혁신창조, 기적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년간 지표별계획을 두달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명 춘 길

새로운 운탄선형성공사 마감단계

룡 산 탄 광 에 서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산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탄광의 운탄선들을 합리적으로 형성하여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주목할만 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며 선탄공정을 완비하여 질좋은 석탄을 소비단위들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탄광에서는 몇달전까지 갱들에서 나오는 석탄을 중량급화물자동차들에 실어 철도인입선까지 수송하는것이 기본운탄방식으로 되여있었다.

한개 로선도 아닌 여러갱으로 오가는 이 석탄수송과정에 소비되는 연유량은 적지 않았다. 탄광일군들은 적지 않은 연유를 소비하는 이 운탄방식을 최단기간에 전차에 의한 운탄선으로 전환시킬 목표밑에 혁명적으로 실천하였다.

일군들은 먼저 합리적으로 정해진 2갱의 운탄선형성공사에 탄광적인 력량을 집중하여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적으로 레루를 비롯한 공사자재가 보장된 속에 탄광적으로 2갱에서 저탄장까지 새 운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졌다.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혁명적열의에 떠받들려 짧은 기간에 새로 완성된 이 운탄선으로는 지금 득장탄광기계공장에서 제작된 우리 식의 능률적인 전차가 기운차게 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6갱의 전차운반로선도 이달중에 완성하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도 일군들과 탄부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하고있다.

갱들의 운탄선을 새로 형성하기 위한 공사성과가 확대되는 지금 탄광적으로 화력탄수송화차를 끌던 소형기관차를 권양기로 대신하는 공정도 확립되여 여기에 소비되던 많은 연유도 쓰지 않게 되였다.

한편 공업시험소장 조운성동무를 비롯한 탄광의 기술집단과 로동자들은 전차탈선복구기를 경량화하고 탄상조건이 복잡한데 맞게 소형콘베아도 만들어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공무동력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새로운 운탄선형성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연신기에 의한 레루못과 축가공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레루이음판도 제작하여 운탄선형성공사성과를 확대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탄광의 운탄공정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룩되는 속에 여러갱의 탄부들이 화력탄생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5갱의 김창호굴진1소대와 리영철채탄1중대, 3갱 신석균굴진1소대와 6갱의 윤광철채탄중대원들이 높은 굴진 및 채탄실적을 기록하면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지 원 철

인민사랑의 자욱우에 넘쳐나는 행복의 웃음소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내 조국땅에 우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창조와 건설의 동음높은 공장에 가보아도 좋고 불빛밝은 수도의 거리를 걸어보아도 좋다. 그러면 로동의 희열과 랑만으로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의 행복넘친 모습, 창창할 래일에 대한 희망넘친 락관의 노래를 들을수 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이때 어떻게 되여 이 땅에서는 그렇듯 긍지높은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인가.

이에 대해 생각할 때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몇해전 1월에 새겨진 이야기를 격정속에 되새겨본다.

인민군대에서 마련한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쁨의 웃음꽃을 한껏 피우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 또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중을 뜨겁게 터놓으시였다.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아가자고.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넘쳐흐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을 받아안으며 우리 천만군민이 심장마다에 새겨안은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 땅에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라는 확신이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다. 그중에는 드넓은 땅과 억대의 재부를 자랑하는 나라들도 있고 경제장성을 떠드는 민족들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령토가 넓고 부유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눈이 부시게 화려해도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는 또 얼마인가.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분쟁으로 류혈참극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여 온갖 멸시를 당하고있는 현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귀중한것은 물질적부가 아니라 참된 정과 사랑이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도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장 숭고한 인민판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이 땅에 인민사랑의 위대한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보람찬 삶을 누리며 행복의 웃음꽃을 한껏 피워가고있다.

지금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느라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1(2012)년 광명성절에 일군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추억깊이 울려온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고생을 하여서라도 인민들을 금방석에 앉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교락을 갈이하며 그들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귀중한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자고, 고생은 일군들이 하고 락은 인민들이 누리게 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울려퍼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며 온 나라 인민이 얼마나 격정에 목메여 울었던가.

바로 여기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포부와 확고한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우리 당의 최고원칙, 최고투쟁목표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는것이다.

이런 숭고한 뜻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그이께서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은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인민사랑의 이야기로 수놓아지고있다.

잊지 못할 주체104(2015)년 새해의 첫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아주실줄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한해전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시면서 설날에 오시겠다고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싶으시여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이곳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오늘 원아들의 밝은 웃음을 보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렸다. 우리가 일은 힘들게 하였지만 저렇게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게 되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이를 악물고 혁명을 하는것은 바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지금 적들이 아이들의 웃음마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고있는데 우리가 그 웃음을 지켜주어야 한다. …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기쁨이기에 새해의 첫날 우리 원아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바로 그래서였다. 평양시버섯공장(당시)을 돌아보실 때에도 우리 원수님께서 새해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평양시에서 뜻깊은 2015년의 첫 성과를 마련하였다고 그처럼 기뻐하신것은.

인민의 행복과 기쁨에서 혁명하는 멋, 가장 큰 희열을 느끼시는분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몇해전 준공을 앞둔 미림승마구락부에 나오시여 규모가 크고 방대한 공사를 훌륭히 끝낸 군인건설자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다음해에는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려고 한다고, 소박하고 근면하며 혁명적인 우리 인민들에게 무엇을 더 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자신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인민을 위한 건설은 계속하여야 한다고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신것이다.

진정 열화같은 사랑과 정을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인민을 이 세상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는분, 인민의 행복에서 최고의 기쁨을 느끼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최상의 락으로 여기시는 절세의 위인, 위대한 혁명가이시다.

인민을 위해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사시는분, 인민의 안녕을 위해 풍랑사나운 바다길, 적들의 총구가 항시적으로 도사리고있는 위험한 최전연에도 서슴없이 나서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을 더 활짝 꽃피워주시기 위해 먼지날리는 험한 건설장의 계단을 오르내리시고 때로는 휘뿌리는 모래바람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설계도면까지 그려주시며 유원지건설을 지도해주신 우리 원수님.

어찌 그뿐이던가. 어느 한 메기공장을 찾으시어서는 요즘은 찾아가는 곳마다에서 자랑스러운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들을 보게 되니 이런 기쁜 일을 보기 위해 일하고있으며 이런 멋에 힘겨워도 혁명을 하고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은 천만의 심장에 깊이 새겨져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리여 이 땅에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꽃펴나고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맹약하실 때 인민의 심장이 얼마나 격정으로 끓어번졌던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대세력들은 우리 인민의 얼굴에 설움과 절망의 표정이 비끼길 바라고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이 나라 천만자식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뜨거운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신다.

날과 달이 흐를수록 더 높이 울려퍼지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지고있다.

그렇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빛나는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이 땅에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가 눈부시게 밝아오고 우리 인민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영원히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좋은 소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흥군 범안리를 찾으시였던 주체90(2001)년 7월 어느날이였다.

일군들은 그이를 새로 건설한 문화주택으로 안내해드리였다.

살림집들은 훌륭하게 꾸려져있었다.

여러칸의 살림방과 부엌, 전실, 세면장과 창고 …

제대군인부부가 사는 마을어귀의 첫집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안을 세세히 살펴보시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지난 겨울에 사람들이 나무를 때서 춥지 않게 지냈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불이 켜진 전등에 시선을 주시며 어디 전기인가고 물으시였다.

자체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라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엌으로 가시여 전기밥가마 접속구를 찾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밥은 전기로 짓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아직 전기로 난방을 보장하고 밥을 지어먹는것까지는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대답을 올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여 전기로 난방도 하고 밥도 지어먹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자체발전소를 세워놓고 전기불을 보는것도 큰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이였다.

그러는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집주인에게 전기화가 될것같은가고 물으시였다.

집주인의 신심넘친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전기화가 완전히 실현되여 전기로 밥을 지어먹을 수 있게 되면 자신께 편지를 써보내라고 하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온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 전기밥가마로 밥을 지어먹을 때 편지를 하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때로부터 몇달후 제대군인부부는 마을의 전기난방화가 실현되고 전기밥가마로 밥을 지어먹게 된 감격과 기쁨을 담아 그이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그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좋은 소식 알려주어 반갑다는 사랑의 회답서한을 보내주시였다.

눈시울을 적시며 서한을 보고 또 보는 일군들과 마을사람들은 마음속격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제일 좋은 소식, 제일 반가운 소식은 인민들의 행복이 늘어나는 소식이라고.

본사기자 전광남

옥류교가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미룰수 없는 중대한 문제

주체47(1958)년 3월 어느날이였다.

건설부문의 한 일군을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 미룰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불렀다고 하시면서 평양시건설계획에 제2대동교(당시)를 언제부터 건설하기로 되여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다리건설은 1961년부터 시작하기로 계획되여있었다. 일군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동강의 얼음은 풀리고있는데 인민들의 소원은 풀리지 못하고있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침에 동평양에 나가보신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대동강웃쪽사람들이 불편하게 에돌아 출근하고있었다고, 아무래도 우리가 힘겨울지만 제2대동교건설을 앞당겨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인민을 위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불같으시였으면 하나의 다리건설을 절대로 미룰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여기시랴.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2대동교건설을 5개년계획이 끝난 다음에 시작할것이 아니라 5개년계획기간안에 끌내자고, 그래서 인민들의 소원을 빨리 풀어주자고 하시며 혁명도 건설도 인민을 위해서 하는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친히 잡아주신 명당자리

그로부터 얼마후 이른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과 함께 배를 타시고 대동강을 돌아보시였다.

어느덧 배는 오늘의 옥류교위치에 이르렀다.

엷은 새벽안개의 장막이 걷히면서 수려한 자태를 드러내는 모란봉과 릉라도를 이윽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안의 량쪽을 가리키시면서 여기가 어떤가고, 훌륭한 새 다리를 여기에다 놓자고,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같다고 하시였다.

일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래로는 련광정과 대동문이 있고 우로는 모란봉과 릉라도의 아름다운 자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데 강반의 경치 또한 이를데없이 좋은 곳이였다.

정녕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찾으실수 있는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였다.

몸소 달아주신 이름

제2대동교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리이름을 《제2대동교》라고 부르지 말고 다르게 짓자는 의견이 인민들로부터 제기되였다는데 대하여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저 릉라도 어울물이 구슬같이 반짝이면서 흐른다고 하여 옥류라고 하고 그래서 그 옥류와 부딪치는 저 병풍같은 돌벽을 옥류병이라고 불렀다고 하시면서 예로부터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옥류라는 이름을 따서 《옥류교》라고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시였다.

《옥류교》!

불러볼수록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사랑이 절절하게 안겨오는 이름이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다리이름도 친히 써주시였다.

이렇듯 옥류교에는 그 설계로부터 시공, 다리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려있다.

본사기자

사진에 비낀 혈연의 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고결한 인민적풍모를 지닌 인민의 지도자입니다.》

주체103(2014)년 12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굽이쳤다. 폭풍같은 만세를 터치며 공장의 종업원들이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어푸러질듯 달려가 안기였다. 헤아릴수 없는 그 인파속에는 신발이 벗겨지는줄도 모르고 달려온 처녀들도 있었고 어느새 경애하는 원수님곁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그이의 팔을 쌍 부여잡은 로동자도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업원들속에 그렇게 함께 계시는것이 기쁘신듯 태양같이 환하게 웃으시였다.

이날 공장이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력사의 그날에 새겨진 감동깊은 화폭들을 신문과 텔레비죤을 통하여 보면서 온 나라 천만군민이 얼마나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던가.

력사의 기록이고 그 시대 인민의 얼굴, 웨침이기도 한 사진, 다채로운 생활의 시공간을 력사의 갈피에 고착시키며 인간의 감정정서에 깊이 침투해온 사진의 력사는 오래다. 그러나 그 무수한 사진의 갈피속에 령도자와 인민이 그리도 스스럼없이 어울려 찍은 사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민들을 쉬임없이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발걸음과 더불어 온 나라가 그대로 기념촬영장이 되였고 이 나라의 수많은 병사들과 로병들, 아이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과학자들과 청년들, 체육인들이 원수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새집들이한 가정들을 찾으시여서는 마치 가족사진같이 한가정의 애틋한 정이 넘치는 기념사진을 찍으시였고 2만여명이나 되는 소년단대표들을 위하여 오랜 시간을 바치시며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품에 온 나라 인민이 무람없이 안겨들었다.

장재도방어대를 찾으신 5년전 그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태여난지 6개월된 정향명어린이를 따뜻이 품에 안아주시였으며 군인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라선땅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라선전역에서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더워지고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대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수만명의 군인들이 한자리에 다 모일 때까지 무려 1시간 30분동안이나 기다리시며 사진촬영의 력사에 없는 숭고한 화폭을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류력사에 사진이라는것이 생긴이래 이런 특이한 기념사진은 아마도 처음일것이다. 이것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숭고한 혈연의 화폭이다.

바로 그 숭고한 화폭들가운데는 준공을 앞둔 인민야외빙상장에서, 경상유치원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우리 아이들을 한품에 안고 찍으신 사진도 있고 눈보라치는 백두산에서 군인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도 있으며 군인들과 인민들이 좋아할 모습을 그려보시며 물고기가 가득찬 렝동창고에서 찍으신 사진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떨친 위성과학자들, 황금해력사의 창조자들 그리고 핵과학자들을 비롯한 국방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영광스러운 우리 당기발이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그 화폭속에 새겨진 령도자와 인민의 모습은 하나의 피줄로 이어진 한가정의 모습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글이나 말로도 다 담지 못할 우리 원수님과 인민의 혈연의 세계, 가를래야 가를수 없는 친혈육의 정을 담고있는 가슴뜨거운 화폭이다.

본사기자 김철혁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을 찾으시였다.

이곳 일군들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기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해마다 공장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00년 12월 인민군군인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공장을 찾으시고 질좋은 주사기와 점적기구들이 생산되는것을 보아주시며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못내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귀전에 울리는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였다.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가 어려와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공장에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뿐만아니라 제품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고 주사기의 다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날의 현지지도는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자욱으로 수놓아졌다.

본사기자

조국강산을 푸른 숲 우거지게 하기 위하여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를 가슴뜨겁게 새겨간다.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군인가족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

오늘도 우리의 군인가족들은 조국보위초소를 굳건히 지켜선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국의 방선들과 일터마다에 애국충성의 자욱을 새겨가는 군인가족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나는 긍지와 자부심은 실로 끝이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인가족들은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조국방선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군인들과 한전호에 서있는 혁명동지, 혁명전우들이며 남편들의 혁명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혁명가의 안해들입니다.》

몇해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아주시였다.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군인가족들을 위해 천금같은 시간을 기꺼이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군인가족들은 총잡은 남편들의 믿음직한 부사수가 되자》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군인가족들이 지난 기간 최고사령관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당에 무한히 충실한 군인가족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자신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총쥔 군인들과 함께 우리 군인가족들이 있다고 하시며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받아안고 뜨거운 격정으로 가슴적신 군인가족들이였다.

그러시고도 주신 사랑이 부족하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그들과 함께 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도 보아주시는것이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열렬한 흠모의 정을 안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어가시는 혁명령도의 자욱자욱에 자기들의 마음을 따라세우는 군인가족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우리 군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이 시와 노래로 울려퍼지고온 나라가 다 아는 장재도의 정항명어린이가 무대에 나와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올리자 관람자들의 가슴은 달아올랐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오직 한마음 최고사령관동지만 믿고 따르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투적으로 생활하는 군인가족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총잡은 남편들을 도와 병사들의 어머니가 되여 모든것을 바쳐가는 군인가족들의 투쟁과 생활을 실감있게 보여주었으며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걸음을 옮기시는 그이를 우러러 군인가족들이 터치는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무대로 오르시는것이 아닌가.

순간 장내는 조용해졌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퍼지였다. 그이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사진촬영장에서 보고싶고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의 안해들이며 어머니들인 동지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는 동지들의 깨끗한 마음에 감사하고 또한 동지들이 지닌 남다른 혁명열의, 혁명적락관주의를 보고 대하면서 받은 충격이 너무 크고 꼭 인사말을 전하고싶어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렇듯 강의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미더운 저 동지들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전우들의 안해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우리 후대들의 다심한 어머니, 총잡은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사수들, 우리 혁명의 영원한 작식대원들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감격의 파도가 장내에 일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무장력은 결코 강위력한 현대적인 타격수단들을 갖추고있어 강대한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사수들이 남편사수들곁에서 뒤바라지를 하고있기에 인민군대가 그 어떤 동란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당과 혁명을 억척같이 보위해가는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고있다는것을 새삼 새겨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동지들의 눈빛에서 말없는 기대의 목소리를 들으며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동지들의 사랑하는 남편들과 자식들이 틀어잡고있는 총대인 우리의 혁명무장력을 최고사령관으로서 영원한 승리의 길로 더 잘 이끌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였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군인가족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다.

동지들과 같은 강인하고 위대한 녀성혁명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가 보건말건 말없이 남편들의 뒤바라지를 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동지들이 흘리고있는 순결한 량심의 땀방울들은 혁명의 피방울인양 우리 혁명의 맥동을 더해주며 더 윤택한 앞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게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북받치는 격정으로 가슴들먹이며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 대회참가자들을 둘러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심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지지해주는 동지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장내는 더더욱 끓어번지였다. 사실 총잡은 남편들과 자식들, 병사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면서도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였고 병사들로부터 고마움의 인사를 받을 때면 송구함에 얼굴을 붉히군 하던 순박한 군인가족들이였다.

그 시각 그들은 한없이 자애롭고 친근한 어버이의 정이 온몸에 흘러들고있음을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끝으로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고 언제나 남편들과 자식들에게 힘이 되여주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인민군군인가족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드린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시며 군인가족들의 친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올리는 대회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로 하여 장내는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그토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대회참가자들의 가슴속에서는 보답의 맹세가 불타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군인가족들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칭호, 총잡은 남편들의 부사수라는 값높은 영예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그 영예를 높이 떨쳐갈것입니다!)

본사기자 김인선

자력자강의 무쇠철마에 새겨진 만리마시대의 영웅서사시

새형의 80hp뜨락또르생산목표를 돌파한 금성뜨락또르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전투기록장을 펼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첫 《천리마》호뜨락또르가 태여난 력사의 고장에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이 또다시 장쾌하게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 로동계급이 생산한 조선의 첫 뜨락또르를 보아주신 때로부터 꼭 59년만인 지난 11월 중순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리마시대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새형의 80hp뜨락또르들을 보아주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바로 이날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가장 행복한 이 순간을 그려보며 시련도 고난도 두렵없이 결사관철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뜨락또르생산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다.

바야흐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또 한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위대한 당에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드린 뜨락또르생산자들, 300여일에 걸치는 격전의 나날 이들이 하루도 번짐이 없이 신념의 붓대로 적어넣은 전투기록은 말그대로 시대를 울리는 영웅서사시로 안겨온다.

새파란 색으로 산뜻하게 단장한 80hp뜨락또르들이 줄지어 달리며 사회주의조선의 대진군가인양 발동소리를 힘차게 울리고있는 여기 기적의 땅에서 우리는 창조의 피땀이 스민 전투기록장을 펼치고 소리높이 그 서사시를 읊고있다.

돌파구를 열게 한 강력한 추동력

올해 정초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공장로동계급의 기세는 고도로 앙양되여있었다.

대소한의 추위속에서도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기한전에 완수할것을 궐기한 로동자, 기술자들은 산악같이 떨쳐나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었다.

그러나 공장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거창한 창조전투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가 충분하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설비, 장비들도 자기 능력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처음으로 기계를 돌려보는 기대공들이 많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술과제도 수두룩하였다.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누구나 입버릇처럼 외우며 분주히 뛰여다녔지만 막힌 고리는 풀리지 않았고 시련과 난관은 각일각 조여들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남포시당위원회 일군인 심동선동무가 환한 얼굴로 공장에 들어섰다.

《자 모두 기운들을 냅시다. 이제 온 공장에 된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남포시당위원회 각 부서 일군들이 배낭을 멘채로 직장, 작업반으로 달려갔다.

방식이 달라졌다. 뜨락또르생산이 시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던것이다. 단순히 기대결에서 로동자들의 어깨나 두드려주고 일손을 도와주는 식이 아니라 일군들이 로동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뜨락또르생산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 섰다.

어느날 시당위원회 여러 일군들이 파주철과 기공구를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들에 나누어타고 주물직장구내에 들어섰을 때 공장일군들은 한달음에 달려나왔다. 애를 먹던 문제가 풀려 기뻐하는 그들에게 최영철, 서광일동무를 비롯한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도 뜨락또르생산을 책임진 주인들입니다.》

한경철, 리철민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의 책임일군들은 직관물을 통한 교양사업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였다.

공장정문으로 들어서면서 한눈에 확 안겨드는 장소에 수십m 길이의 직관판들이 설치되였다.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그앞에 격식없이 모여앉아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을수 있는 속보제목을 달기 위해 고심하였다.

공장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로동계급의 결의와 진심이 반영된 제목이여야 했다. 현상응모작품심사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서 격동적인 제목들이 나왔다.

《첫 뜨락또르를 몰고 평양으로 남먼저!》, 《주체탄은 하늘로, 무쇠철마는 협동벌로!》, 《자강력땅크로 압살장벽 짓부시자!》, 《결사의 각오없이 전투장에 들어서지 말라!》, 《파제를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

대문짝같은 글발들이 나붙으니 누구나 정신이 번쩍 든다고, 화선에 선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의 눈빛과 걸음새가 달라졌으며 생산돌격전은 철야전투로 이어졌다.

김진광, 서광렬, 김병국동무를 비롯한 공장당위원회일군들은 공장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으며 이 사업에 전세대 뜨락또르생산자들과 공로자들을 적극 인입시키였다.

체험을 가지고 구수하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은 비록 길지 않았어도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큰 힘을 나타내군 하였다.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첫 뜨락또르를 생산하던 전세대 로동자들의 위훈담을 들으며 새 세대 로동자들은 백절불굴의 의지를 가다듬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한길로 매진하였다.

선동력량이 집중과 분산을 능숙하게 배합하면서 생산의 결정적돌파구를 열기 위한 전투장들에 기동적으로 전개되였다. 주물, 주강, 단조 등 소재생산을 맡은 부문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졌다.

시에술선전대 대장 강금희동무와 선전대원들은 낮에 밤을 이어가며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노래와 화술작품으로 대중의 심금을 울리였다.

제관직장에서 긴급전투가 벌어질 때에는 그곳에서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단숨에》, 《우리는 만리마기수》와 같은 호소성이 강하고 기백있는 노래들이 울려퍼졌고 변속기조립전투장에서 위훈이 창조될 때에는 또 그곳에서 혁신자들을 축하하는 노래소리가 울리였다.

공장기동예술선동대는 말할것도 없고 각 구역, 군들에서 달려나온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이 공장구내의 곳곳을 전호처럼 차지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화선선동을 들이댔고 시작가동맹위원회 작가들은 기대결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괴가 뛰는 서정시와 담시, 벽시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시당위원회일군들과 공장의 일군들로 구성된 현장지휘부에서는 생산의 중심고리를 제때에 포착하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긴급조치들을 취하면서 사상전의 련속포화를 들이댔다.

파주철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단 며칠만에 해결해주었고 운전실제작전투때에는 시안의 중요공장, 기업소의 유능한 용접공들과 연마공 수백명을 집중투하해주었다.

후방사업이자 정치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일군들은 후방사업과 관련된것이라면 사소한 문제까지 놓치지 않고 혁명적인 대책을 세웠으며 완강하게 내밀었다. 이 나날에 많은 고급기능공, 기대공들의 살림집이 새 집처럼 깨끗이 꾸려졌다. 고지우로 급이쳐가던 전선원호대와도 같이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를 실은 대렬이 꼬리를 물고 공장으로 들어섰으며 뜨락또르생산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은 나날이 고조되였다.

화선식정치사업이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명중포화로 되였다면 후방사업의 성과는 련속폐승의 생산성과로 이어졌다.

설비도 그 설비,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였다.

사상전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남에 대한 의존심, 수입병, 패배주의와 같은 온갖 낡은 사상관점들이 모조리 불타버렸다. 뜨락또르생산의 돌파구는 이렇게 열리였다.

오늘의 자력갱생진군은 결사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날 줄지어 늘어선 새형의 뜨락또르들을 만족한 표정으로 둘러보시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낳은 창조물들이라고, 이것이 진짜 우리 뜨락또르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뜨락또르생산전투참전자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비상한 각오가 없었다면 그처럼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 뜨락또르 한대 변변히 내놓지 못하였을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부속품, 부분품들의 가공정밀도를 보장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적으로 당당히 앞선 현대적인 뜨락또르를 만들수 없었다. 그것도 견본을 보방하는 식이 아니라 완전히 개발창조형으로 만들자면 결정적으로 설비들을 갱신해야 하였다.

온 공장이 설비현대화의 불바람이 일어났다.

합유연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오래동안 멎어있던 스프라인연마반과 가동중에 있던 가공연마반개조에 달라붙었다.

(우리끼리 좨 해낼수 있을가.)

나어린 기대공이 머리를 기웃거리자 기능공 리성호동무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남을 쳐다보는 버릇이 붙으면 아무 맥도 추지 못하는 법이야. 만리마를 타고 날겠다면서 남이 교복을 잡아주기를 바라선 안되지.》

이처럼 투철한 자력갱생의 신념에 떠받들려 설비들이 새롭게 태여나기 시작하였다. 공장의 기술력량이 수직후라이스반과 보링반을 비롯한 설비개조에 열을 올리고있을 때 뜨락또르바퀴테굴곡기를 새로 제작하기 위한 전투가 립체전으로 벌어졌다.

3년은 실히 걸릴것이라고 하던 기술공정표가 단 2달만에 작성되는가 하면 수천개의 지구장비들이 단 몇달사이에 태여났다. 수백대에 달하는 설비들이 이런 전투과정에 새롭게 개조되여 생산적앙양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되였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기존공식과 능력을 깨뜨리면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세우는 유일한 전투방식을 분초를 쪼개며 줄기차게 내달리는 철야전투로 정하였다.

주물직장에서 있은 일이다.

하루평균 6~7차지씩 쇠물을 부어내며 기세좋게 가동하던 중주파유도로에서 갑자기 이상현상이 생기였다. 로를 보수하자면 최소한 짧게 잡아도 24시간동안 로를 식혀야 하였다. 거기에 로보수시간까지 합친다는 것은 말도 안될 일이였다.

책임기사 권철진동무가 묵묵히 장갑과 마스크를 끼더니 찬물이 출렁이는 물통을 옆사람에게 들려주며 등을 돌려댔다.

《어서 부으라구. 우리도 결사전이야.》

만류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찬물을 들쓰고는 수백℃의 고열이 뿜어나오는 로속에 뛰여들었다.

수백℃의 로안온도! 사실 그것은 격전장이였다. 숨막히는 고열과 연기와 싸우며 로벽을 허물고 다시 쌓는 불굴의 인간들, 간신히 밖으로 나와 깊은 숨쉬기를 하다가는 다시 불잡을새없이 로속에 뛰여드는 그 모습은 불사조들을 방불케 하였다.

자동화분공장에서도 결사전이 벌어졌다. 그것은 불도 연기도 없는 격전, 원쑤들과의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두뇌전이였다.

사장되여있던 내면연마반을 훌륭히 개조한 공장장 김영복동무를 비롯한 분공장의 기술집단은 이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압식조향장치를 만드는데 달라붙었다. 조립반장 김동식, 조립공 리정남동무들은 공장에서 만드는 부분품가운데서 가장 높은 가공정밀도를 요구하고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유압식조향장치제작을 위해 분초를 조개가며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였다.

한다하는 나라의 이름난 뜨락또르생산지들에서도 그 장치만은 다른 나라의 전문생산업체로부터 수입하여 조립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들의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주고 더욱 분발하게 하였다.

실패에 실패가 거듭되자 촉박한 시일을 빗대면서 한걸음 후퇴하여 반결합식으로 만들어보자는 나약한 소리들이 울려나올때였다.

늘 말이 없던 김동식동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단번에 도약하는 길이 쉬울수야 없지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러선다는건 고지를 적들에게 내주고 도망치는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길, 그것은 자력갱생의 길이였다.

이처럼 굳건하고 이처럼 드넓은 신념의 기둥이 마음속에 든든히 자리잡고있었기에 분공장의 기술집단은 끝내 우리 나라 륜전기계공업분야에서 하나의 혁명으로 불리울만 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유압식조향장치를 훌륭히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날 몸소 뜨락또르를 몰아보시고 특히 조향이 만문하다고 높은 평가를 하여주시였다.

자력자강의 길에서 단 한치도 탈선을 모르는 사람, 오직 그 길에 삶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좌우명을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강자들만이 해낼수 있는 일이였다.

공장이 자랑하는 자력갱생선구자들중에는 변속기조립전투에 뛰여들어 위훈을 세운 3대혁명소조원들도 있다.

소조책임자 김은혁동무는 당세포위원장 김혁동무와 함께 소조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련속 받아들임으로써 변속기조립속도를 몇배로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영민, 리원철, 김충일, 함은철, 리진혁동무를 비롯한 소조원들도 피타는 사색파탐구로 설비개조전투와 기술혁신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그들은 70여건에 달하는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여 뜨락또르생산에 이바지하였다.

자동화분공장의 김학성동무는 새로운 가공지구창안으로 밤을 밝히였다. 그가 제작한 새 가공지구에 의해 회전변가공속도는 일약 3배로 뛰여올랐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킨 창의고안명수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떼여놓고 생각해본적 없는 이런 창조의 능수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올해 뜨락또르생산전투파정에 공장의 기술력량이 결사적으로 달라붙어 개발도입한 기술혁신안은 무려 수백건, 이것은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이 폭발할 때 얼마나 거대한 힘을 낳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그렇다. 즐비하게 서있는 자력자강의 무쇠철마에 비껴오는것은 과학기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결사전을 벌리는 자력갱생 선구자들의 영웅적군상이다.

하나의 박동으로 높뛰는 심장들

뜨락또르생산자들은 무엇을 바랐는가.

창의고안명수, 로력혁신자가 되여 받는 꽃다발이였던가. 선구자가 되여 만사람의 축복속에 축하무대에 오르는것이였던가.

이번에 공장의 로동계급은 80hp뜨락또르부속품 총 3377종에 1만 228개가운데서 3333종에 1만 126개의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함으로써 국산화비중을 98.7%로 올리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1만여개의 부속품,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다.

한것은 그 한개한개의 부속품들에서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그 모든 인간의 감정정서를 초월한 단 하나의 뜨겁고도 절절한 소원이 세차게 빛발쳐오기때문이다.

나이와 성별의 차이, 각이한 직종, 기능에도 불구하고 뜨락또르생산자들이 한결같이 소중히 간직하고있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터에 모시고 기쁨을 드리려는 너무도 강렬하고 너무도 간절한 오직 하나의 마음뿐이였다.

단조직장에서 있은 일이다.

깊은 밤 21탕마가 지축을 울리며 쿵-쿵 소재를 때리는 현장에 직장장 차병도동무의 안해가 이웃의 녀인들과 함께 큼직큼직한 버치며 소랭이들을 이고 들어섰다.

땀으로 미역을 감던 억대우갈은 사나이들이 지친 기색을 감추느라 짐짓 미소를 지으며 안해들을 반겨맞았다. 한집안식솔처럼 단란하게 마주앉아 음식들을 드는데 걸죽한 콩말과 우스개소리들이 오가더니 간간히 웃음보도 터져나왔다.

차병도동무가 안해에게 귀속말로 말했다.

《요새 당신네들이 정말 남강마을녀성들처럼 돋보이는구만.》

안해 역시 귀속말로 말했다.

《뜨락또르를 몰고 평양으로 가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껏 일하세요.》

그때 다른 안해들도 제각기 남편들의 귀에 대고 꼭같은 말을 하고있었다.

당중앙위원회뜨락으로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뵙고싶은 그 하나의 열망으로 불타는 심장들에서 집단주의의 불길, 영웅적이고 희생적인 위훈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어제날 처녀시절에 공장을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니였던 박춘식녀성은 70살이 다되여오는 나이에 다시 선반공이 되였다. 자식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평양을 떠나 공장에 다시 찾아온 그는 기대앞에 서서 뜨락또르생산에 참가하였다. 공장에서 3대혁명소조생활을 마치고 자진하여 선반공이 된 리윤정, 리은정동무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도 소중한 꿈이 간직되여있었다.

함유연직장의 작업반장이였던 김혁윤동무, 지금은 우리곁에 없는 그를 어찌하여 사람들은 오늘도 잊지 못해하는가. 가정적인 애로도, 좋지 못한 건강상태도 남모르게 묻어두고 소재, 소재 하며 뛰여다니고 도면과 공구만 찾던 그가 뜻밖에도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그의 품속에서는 자작시가 적힌 자그마한 수첩이 발견되였다.

《한순간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시작된 한 인간의 고결한 인생관과 희망이 비낀 한편의 유고작을 들으며 작업반원모두가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였다.

소제직장 작업반장이였던 권영범동무도, 정범한 용접공이였던 리태식동무도 바로 그 한순간,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장에 모시고 뜨락또르열병식을 보여드리고싶은 그 영광의 한순간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기대결을 떠나지 않았다.

한목숨 기꺼이 바쳐서라도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며 바로 여기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미더운 조선로동계급이다.

내각과 기계공업성 륜전기계공업관리국, 련관단위 대학,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연구사, 기술자, 로동자들도 새형의 뜨락또르생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었다.

기적은 바로 그 결곡하고 충직한 마음, 하나의 목적, 하나의 숨결로 높뛰는 심장들이 안아온 것이였다.

* *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새형의 뜨락또르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하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한 금성뜨락또르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조국과 시대앞에 투렷한 불멸의 자욱을 새기였다.

사회주의 내 조국의 협동벌을 누벼가는 자력자강의 무쇠철마들은 신념의 강자, 영웅서사시의 주인공들을 소리높이 자랑하며 황금벌의 새 력사를 빛내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글 특파기자 주 창 선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995호 주체106(2017)년 11월 21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인쇄회로기판시험공장
- 남양탄광 7갱 차광수청년돌격대

2중3대혁명붉은기
- 선교식료공장
- 평양시위생방역소
- 평원은하피복공장
-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농목장 종축작업반
- 길주군 봉암협동농장
- 온성군량정사업소 종성분사업소
- 검덕광업련합기업소 4.5합숙
- 함흥시 사포남새농장 농산작업반
- 갑산군 사평협동농장 제1작업반
- 평양금속건재공장 거울직장

3대혁명붉은기
-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 탄광직장
- 모란봉구역위생방역소
- 평양아동백화점
- 서성구역식료품종합상점
-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자재상사
- 문덕군산림경영소
-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합금철생산직장
- 덕천시청소년체육학교
-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주강직장
- 신의주시려객자동차사업소
- 삭주군량정사업소
- 천마군 지경협동농장 제1작업반
- 염주청년간석지농장 제5작업반
- 창성은덕원
- 은천군 덕천협동농장 제10작업반
- 신원군 신창협동농장 제4작업반
- 삼천과수농장 삼천작업반
- 배천군국수집
- 립석전주공장
- 신계군농기계작업소
- 향하혁명사적관
- 위원군 송진협동농장 제2작업반
- 송원군 월숭협동농장 제1작업반
- 철원군 룡학협동농장 제4작업반
- 판교군 지하협동농장 제6작업반
- 학포탄광 전차갱 채탄1중대
-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석성탄광 1갱 채탄2중대
- 함흥시 성천강구역상업관리소
-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사범대학 자연과학부
- 유평림산사업소 이계수작업소
- 서해갑문사업소
- 대안전기공장 변압기직장
- 선봉혁명사적지관리소
- 라선종합식료공장
- 선봉철길대 후창철길소대
- 룡라곱등어판
- 평양정보기술국 카드연구소
- 만경대관광기념품전시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996호 주체106(2017)년 11월 21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영예의 붉은기
- 대동강구역 문흥고급중학교

2중영예의 붉은기
- 청진시 수남구역 추목소학교

영예의 붉은기
- 강계외국어학원
- 함흥시 흥덕구역 영웅은덕고급중학교
- 함흥시 해안구역 룡성소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수필

11월 14일

11월 14일, 행복의 탈력을 번지며 무심히 스쳐볼수도 있는 이 땅의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당이 맡겨준 새형의 뜨락또르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금성뜨락또르공장의 로동계급을 찾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날의 의미는 레사롭게 안겨오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맨손으로 뜨락또르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공장에 들어서니 새파란 색으로 산뜻하게 도장된 미남자같은 수백대의 80hp뜨락또르들이 나란히 정렬해있었다. 그 뜨락또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멋있다고, 로동계급의 정신력이 낳은 성과이라고, 적들이 아무리 제재책동을 한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다는것을 이 뜨락또르가 보여준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이 뜨겁게 어려왔다.

가슴벅찬 흥분속에 공장의 혁명사적교양실에 들어선 우리는 한상의 영상사진문헌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주체47(1958)년 11월 14일 내각청사앞마당에서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첫 뜨락또르《천리마》호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추억깊은 사진문헌이였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 오늘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천리마》호뜨락또르를 보아주신 59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씀올리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시고 정말 좋은 날이라고, 이번에 만든 뜨락또르를 우리 수령님께서 보아주시였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11월 14일!

절세위인들의 혁명활동의 길에 수놓아진 그 력사적순간들의 일치속에서 위대한 두 시대, 두 세기를 관통하는 귀중한 진리가 빛발쳐왔다.

연한 풀색의 차체며 그 어떤 짐도 척척 실어나를 기세로 바퀴를 억세게 뻗치고 선 우리의 첫 뜨락또르,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단 35일만에 관철한 조선로동계급의 기상이 나래치는 천리마시대의 력사적증견자였다.

기양의 로동계급이 우리의 첫 뜨락또르를 몰고 평양으로 올라온 그날 그 미더운 천리마시대의 산아를 보시며 기술신비주의란 없다고 그처럼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듯 하였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59년이 흘렀다.

허나 자력갱생의 무쇠철마《천리마-804》호뜨락또르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그대로이시였고 우리 나라의 첫 뜨락또르를 만들어낸 전세대들의 혁명정신은 오늘의 기적을 낳은 원천이 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였다고 하는 뜨락또르들과 당당히 견줄 우리 철마들의 그 억센 바퀴들은 마치 원쑤들의 제재장벽을 깔아뭉개는 자력자강의 무쇠발톱, 사회주의전야에 행복의 이랑을 끌없이 지으며 찬란한 래일을 당겨오는 만복의 치차처럼 어려왔다.

그 철마의 힘은 80hp이라는 수자의 의미만으로 헤아릴수 없다.

기계적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위대한 당을 따라 질풍노도쳐나가는 천만의 정신력, 조선의 자강력은 무한대하다.

11월 14일!

이날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두 시대의 조선의 뜨락또르가 태여난 날이며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쉬임없이 새겨주는 또 하나의 자력갱생승리의 날이 아니겠는가.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다시금 탈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흐르고흘러갈 창조와 혁신의 날과 날들이 11월 14일처럼 안겨왔다.

염 금 명

제힘을 믿고 떨쳐나 과일증산의 돌파구를 열어간다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 활발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각지 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수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올해에만도 이들은 나무모캐기와 전호식구멩이파기, 풀깎기와 비료주기 등 여러 영농공정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들을 수많이 창안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몇해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수부문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넣을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뜻을 심장깊이 간직한 농업성의 해당 일군들은 우리식 농기계들이 청춘과원에 차넘치게 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들은 과수농장들의 기계화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일 품이 드는 농약뿌리기공정부터 기계화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북청과수기계공장에 나간 일군들은 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여러가지 지구장비와 공구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한 투쟁에로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북청과수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수십차례의 협의회와 모의시험을 하는 과정에 크랑크측련결대문제를 푸는데 동력분무기제작의 성패가 있다는것을 포착하고 지혜를 합치였다.

그 과정에 형단조의 방법으로 만들던 크랑크측련결대를 주물의 방법으로 해낼수 있는 새 기술을 창안도입하고 첫 시제품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100대의 동력분무기와 10대의 콜란쟈뿜프를 생산하여 당에 기쁨을 드리였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력분무기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많은 분무기를 과수농장들에 보내주었다.

각지 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농기계생산에 적극 떨쳐나섰다.

평도업적단위들이 이 사업에 앞장섰다.

파일군과 북청군,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기계생산을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올해에만도 나무모캐기와 전호식구멩이파기, 풀깎기와 비료주기 등 여러 영농공정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 과수작업에 적극 리용하였다.

특히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짧은 기간에 농기계제작에 필요한 설계를 완성하고 제작에 달라붙었다.

올해에 이들이 창안제작한 치차통력식풀깍는기계는 착상이 새롭고 능률적인것으로 하여 대중의 호평을 받고있다.

청진과수농장에서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약뿌리기 능률을 더욱 높일수 있는 전동장치가 달린 배낭식분무기를 새롭게 만들어냈다.

동림과수농장에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현실성있고 능률적인 약뿌리는기계를 창안제작하여 제44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금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책동을 짓부셔버릴 일념으로 과수작업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우리 식 농약생산을 다그친다

온천과수농장에서

최근년간 과수부문에서 농약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있다.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에 의한 농약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생산을 다그쳐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올해에만도 다류화농약을 비롯한 화학농약과 함께 많은 식물성농약을 생산하여 좋은 과일작황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지난 시기 과수부문에서는 농약의 대부분을 자체로 해결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다보니 과일나무들에 대한 병해충구제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였다.

과일생산에서 병해충구제이자 곧 생산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과수부문 일군들은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각종 농약들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농업성의 해당 일군들은 우리 식 농약생산과 관련한 선진기술보급과 보어주기사업을 여러차례 조직하고 모든 과수농장들에서 자체의 농약생산기지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내밀었다.

이 과정에 온룡, 삼천, 신천 과수농장들에서 자기 지방에 흔한 증정석을 리용하여 다류화바리움을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결과 적은 류황을 가지고도 살균효과가 큰 농약을 생산하여 병해충구제를 원만히 진행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함흥, 단천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농약생산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이들은 화학공장들에서 나오는 폐설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놓고 석회류황합제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약효력지속기간이 긴 이 농약을 자체로 만들게 됨으로써 녹병, 떡가루병을 미리 막고 진드기류와 같이 과일나무들에 해를 주는 여러가지 병해충을 구제할수 있게 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끝까지 투쟁해나가면 우리 식의 농약을 얼마든지 생산할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숙천청년과수농장에서는 여러가지 농약을 50%나 절약할수 있는 첨가제를 연구개발하였으며 사리원과수농장에서는 광물성살충제를 자체로 생산하여 원가를 줄이면서도 효능이 높은 농약과 첨가제를 생산할수 있었다.

평양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몇해째 자체로 농약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근기있게 내밀어 효능이 높은 각종 농약들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았다. 그리하여 병해충구제에 필요한 각종 농약을 자체로 생산리용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북청군과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고산과수종합농장, 사리원과수농장을 비롯한 각지 과수농장들에서도 벼겨건류액과 목초액 등 식물성농약생산기지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그 생산을 힘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수입농약의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무공해과일을 생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식의 농약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떨쳐나선 과일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농약생산공정을 일떠세우고 각종 농약을 원만히 생산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였다.

농약생산과 함께 살충효과가 큰 빛유인성고전압나비등과 당초산유인제 등을 리용하여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져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서도 해충구제를 원만히 진행하였다.

결과 과수부문에서 자체로 생산한 농약으로 올해 과일대풍을 안아오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각지 과수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자력갱생의 기치밀에 우리 식의 효능이 높은 농약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다음해에도 또다시 과일대풍을 안아오기 위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지력개선에 품을 들인 보람

온천과수농장에서

토양의 특성을 잘 알고 지력을 높여야 한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실천에 옮기기는 결코 헐치 않다.

최근년간 지력을 높여 과일생산에서 전진을 이룩한 온천과수농장의 경험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농장에서는 해거리현상으로 과일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었다. 원인은 과일나무들의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데 있었다.

해마다 과일생산을 늘이자면 결정적으로 지력을 높여야 했다. 농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작업반마다 돼지우리의 물거름받이시설, 퇴적장 등을 꾸려놓고 거름을 생산하여 밭에 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없었다.

일군들은 지난 시기 과일생산경험과 토양분석결과를 놓고 땅을 걸구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워나갔다.

그중의 하나가 진거름문제였다. 진거름속에는 다른 유기질비료보다 질소와 린, 카리 그리고 미량원소함량이 많다.

그러나 농장에는 그 원천이 제한되여있었다. 그렇다고 도시에 나가 실어오자니 거리가 너무 멀었고 운반수단문제도 걸렸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진다면 지력을 높일수 없었다.

일군들은 지력문제를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에서 대하였다. 그리하여 조건타발이란 있을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 과정에 모든 자동차들이 남포시와 온천군에 나가 도시거름을 실어오기로 하였다. 또한 전문적으로 도시거름을 운반하는 작업조를 내오고 2대의 화물자동차를 뚝 떼주었으며 차부속품도 제때에 해결해주는 체계를 세워놓았다. 그리하여 이 사업은 하루도 번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였다. 수십대의 달구지들까지 동원되여 거름운반실적을 올리였다. 농장에서는 이렇게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해마다 5 000여t의 도시거름을 운반하고 수천t의 흙보산비료와 1만 2 000여t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과수밭들에 정보당 25t이상 냈다.

그뿐이 아니다.

농장에서는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된 소금밭이끼를 겨울철이면 집중수송하여 수백정보의 과수밭들에 골고루 뿌려주는 사업도 완강하게 내밀었다.

지력이자 과일수확고였다. 이처럼 지력을 높이는데 품을 들인 결과 농장에서는 해마다 과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유산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어

개성시에서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개성시에서 민족유산애호월간을 맞으며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시에서는 고려 15대왕(숙종)릉을 훌륭히 복원하였으며 시안의 다른 문화유적과 유물들을 더 잘 보존관리하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애국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이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사람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속에 깊이 새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하였다.

시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이 왕건왕릉과 령릉사, 고려박물관 등에 자주 나와 보존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있는 해당 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국장 홍순도동무를 비롯한 시민족유산보호국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려박물관과 왕건왕릉을 현지지도하신 날을 맞으며 현지교시내용을 종업원들에게 인식시키고 그 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그리고 문화유적들을 옛 모습그대로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있도록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재들과 설비들을 보장해주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또한 종업원들이 자기의 책임성과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떠밀어주는 한편 그들의 생활조건을 풀어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에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과의 협동하에 수백년세월 묻혀있던 고려 15대왕릉을 발굴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관리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릉을 복원하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수십m의 곡장을 축조하고 수십m³의 돌을 체취하여야 하는 어려운 공사였지만 이들은 현장에 숙소를 전개하고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릉을 력사주의적원칙에 맞게 훌륭히 복원하였다.

전승호동무를 비롯한 령릉사 유적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인입도로를 자체로 포장하고 박연-령릉사관광도로관리를 정상화하여 참관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었다. 또한 문화유적들이 큰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었으며 버섯재배장과 온실, 축사 등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왕건왕릉유적관리소에서는 유적과 유물들을 잘 보존관리하기 위해 산당집지붕보수와 릉문, 제당기둥단청을 진행하여 후대들에게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줄수 있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시에서는 수천장의 기와들을 생산하여 고려성균관을 비롯한 여러 대상들의 지붕보수를 진행하였으며 왕건왕릉과 령릉사를 비롯한 10여개 대상들의 력사유적표식주도 교체하였다.

11월에 들어와 민족유산애호월간을 계기로 개성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의 뜻을 받들고 떨쳐나선 개성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왕건왕릉과 령릉사를 비롯한 민족문화유산들에 대한 보호사업은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특파기자 신경섭

— 농업성 중앙버섯연구소에서 — 본사기자 적음

연구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간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가치있는 교육과학성과 달성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교육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이 되는 올해를 교육사업 성과로 빛내일 열의를 안고 대학의 일군들은 학과목들의 당정책화, 원리화, 통속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목표를 세우고 교육강령을 전면적으로 개선완비하며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대학의 교원들은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올해에만도 40여종의 교과서, 참고서들을 새로 집필하였으며 합리적인 교육방법들을 받아들여 학생들의 창조적능력과 실천능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이곳 교원, 연구사들의 불타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출판인쇄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고 경제강국건설에 기여할수 있는 9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민들레학습장공장과 평양가방공장의 생산정상화에 기여하는 제책용풀과 학생가방인쇄잉크에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어나갈 인쇄공학부 연구집단의 고심어린 노력이 깃들어있다.

산업미술대학과 품질관리학부 연구사들이 평양화장품공장의 현대화와 류원신발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기계공학부, 원격학부의 연구집단도 평양교등교육도서인쇄공장의 경영업무관리체계 구축사업을 결속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국과수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5일 전국과수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그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불면불휴의 헌신과로고를 바쳐가시며 주체적과수업발전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모신 홀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그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믿음이 있어 희한한 과일대풍을 안아올수 있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불세출의 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우리 나라를 과수의 나라로 전변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혁명적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룡이 크게 궁리하고 높은 목표를 내걸어야 제기된 과업을 혁명적으로 해제낄수 있으며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자강도림업관리국 자재상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도안의 림산사업소와 갱목생산사업소들에 통나무생산용 자재와 물자들을 보장해주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된 건물들과 아담한 문화후생시설들, 그쯘한 후방사업토대…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정신이 번쩍 들고 통나무생산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어려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도림업관리국 자재상사 사장으로 새로 임명되여 단위를 돌아보는 김관성동무의 걸음은 가볍지 못하였다.

상사의 건물들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그날부터 그의 사무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일터에 대한 애착이 없이 주인다운 립장이 나올수 없고 사업에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습니다. 애로와 난관을 뚫고 우리의 손으로 단위의 면모를 일신시키면서 통나무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갑시다.》

그의 호소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단위의 면모는 나날이 눈에 띄게 달라져갔다.

짧은 기간에 2층짜리 기본청사와 회의실, 보조건물들은 물론 차고와 자재창고들이 번듯하게 일떠섰으며 시원하게 포장된 구내도로주변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과일나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기 위한 투쟁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었고 종업원들은 더 문명해질 래일을 그려보며 억척스럽게 떨쳐나섰다.

힘은 들었어도 보람은 컸다. 태양열온실과 버섯재배장, 메기양어장, 염소방목지에서 해마다 많은 남새와 버섯, 고기, 우유가 생산되여 종업원들의 식생활은 더욱 윤택해졌다.

일군들은 각지에 나가있는 부원들과 인수원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맡은 일에 전심할수 있게 그들의 가정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풀어주었다.

김관성동무는 새로 배치되여온 제대군인 리광혁동무가 군사복무의 나날 부모를 잃고 그의 누이동생이 중등학원에서 공부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을 때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그의 집을 새 집처럼 꾸려주고 부엌세간과 텔레비죤과 이불장, 옷장을 비롯한 가정용품들과 땔감은 물론 여러벌의 새옷도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종업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주어 그들이 당을 받들어 변함없이 맡은 일을 잘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이러한 나날 부원들과 인수원들, 종업원들모두가 두툼, 세툼씩 일감을 말아해제끼는 혁신의 창조자가 되였다.

올해에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통나무생산에 이바지할 륜전기재들의 부속품들과 산지합숙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도안의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일터에 대한 애착이 없이 주인다운 립장이 나올수 없고 사업에서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김관성동무를 비롯한 단위의 일군들은 늘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며 자신들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뜻도 마음도 하나가 되여 통나무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남모르는 길을 쉬임없이 걷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뜻도 마음도 하나가 되여

자강도림업관리국 자재상사 일군들과 종업원들

가며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 연유와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과 함께 단위를 일신시키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일군들은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통나무증산투쟁에 지장이 없도록 지구별에 따르는 정연하고 합리적인 자재공급체계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였다.

동시에 단위의 물질적토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몸을 푹 잠그고 대중을 위훈에로 불러일으켰다.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순간의 주춤도 없이 앞으로만 내달리는 김관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완강한 일본새와 종업

뒤이어 차고우에 태양열온실이 건설되였다.

종업원들을 위한 식당과 한증탕이 달린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과 메기양어장, 미꾸라지서식장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투도 힘있게 벌어졌다.

하나둘 일떠서는 자기들의 창조물을 보며 종업원들이 기쁨을 금치 못해할 때 일군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김관성, 박기영, 김영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전설과 종업원휴게실, 탁구장을 개건하고 조명과 업무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 염소방목지를 일떠세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꾸바공화국을 공식방문하고있는 외무상 리용호동지가 24일 국가리사회청사에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수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와 구두친서를 리용호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게 보내시는 위문을 전달하였다.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석상에서는 조선과 꾸바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였다.

여기에는 박창율 꾸바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브루노 로드리게스 빠릴랴 꾸바공화국 외무상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아바나 출발

외무상 리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꾸바공화국을 공식방문하고 24일 수도 아바나를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꾸바외무성 관계자들과 꾸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대표단은 체류기간 아바나의 혁명광장에 있는 호세 마르띠상에 화환을 진정하였으며 호세 마르띠기념당, 국가미술박물관 등을 참관하였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떠나갔다

제3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던 리영수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25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몽골조선친선의원단 위원장일행 귀국

오. 바싼후 몽골조선친선의원단 위원장과 일행이 25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몽골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 1돐에 즈음한 추모행사 진행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 1돐에 즈음한 추모행사가 25일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사진앞에 놓여있었다.

추모행사에는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위원장인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 인민무력성 부상 륙군상장 김형룡동지, 외무성 부상 허용복동지, 대외경제성,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외교단사업총국의 일군들과 혜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쎄 쏘톨롱고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인민무력성, 외무성, 조선꾸바단결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사진앞에 진정되였다.

이어 꾸바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는 서반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반제자주를 위한 정의의 위업에 모든것을 바친 저명한 정치활동가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주조꾸바대사관을 조의방문하시여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고 꾸바에 고위급조의대표단을 파견해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과 꾸바사이의 형제적관계, 친선의 바통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변함없을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조선꾸바친선관계발전에 공헌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생애를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참관기

민족의 향기 넘치는 우리 생활, 우리 음식문화

평양시안의 봉사단위들과 가정주부들의 김치경연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김치와 떡 같은 여러가지 민족음식을 장려하여야 하며 그것을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만들어먹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평양시안의 봉사단위들과 가정주부들의 김치경연이 진행되고있는 려명거리의 료리축전장을 찾았다. 집집마다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례사로운 생활로 펼쳐지는 김장철에 김치경연이 시작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참관자들로 하여 료리축전장은 여느때없이 흥성거리였다.

통배추김치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잘 살리자면 초절임과 양념소만들기, 담그기를 어떤 묘리를 가지고 할것인가. 호기심과 기대를 품은 참관자들이 통배추김치를 만드는 료리사들과 가정주부들의 솜씨를 흥미진진하게 살펴보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일군은 이번 경연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김치담그기방법과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있으며 그 과정에 이룩된 좋은 경험들을 서로 배우고 배워주는 사회적열의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초절임의 묘술은 어디에

이번 김치경연은 통배추초절임으로부터 시작되였다. 통배추김치가 익었을 때 배추속살이 만문하고 쩡한 맛이 살아나게 하자면 뭐니뭐니해도 초절임이 잘되여야 하는것이다. 경연에서 심사를 맡은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의 일군은 통배추김치의 상긋한 맛은 초절임에 많이 달려있다고, 배추품종에 따라 초절임시간이 조금씩 차이나는데 소금물이 너무 싱겁거나 반대로 짜지면 배추가 빳빳하게 살아나거나 단물이 빠져 질기여질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먼저 향만루대중식당 료리사들인 김경혜, 류정순동무들이 초절임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지난 시기의 김치경연에서 1등을 한 경흥지도국이 올해에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는것이 첫눈에 알렸다. 준비한 통배추가 잎이 연하고 크기가 적당한 배추품종이여서 절임이 빨리 될것으로 타산한 료리사들은 통배추를 절반으로 갈라 10%의 소금물에 얼마간 담그었다가 꺼내여 절임통에 넣고있었다.

창전해맞이식당의 백명학, 한승진료리사들도 이런 방법으로 초절임을 하고있었는데 절임통에 배추를 다 넣은 다음 약간 누름을 주고는 맨우에 우거지를 한벌 촘촘히 덮어주고있었다. 참관자들중의 한사람인 황옥순녀성이 속삭이는 말이 들려왔다.

《우거지를 반드시 덮어주어야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초절임을 저렇게 한답니다.》

알고보니 그는 백명학료리사의 장모였다. 황옥순녀성은 자기가 오래전부터 알고있는 통배추초절임의 특이한 비방을 사위에게 넘겨주기 위해 품을 들여왔다고 한다. 언제인가 그가 만든 통배추김치를 맛본 외국인들은 조선김치가 제일이라고, 쩡하고 향긋하고 감미로운 진정한 김치맛을 보았다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고 저저마다 통배추초절임의 묘방을 알고싶어했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 우리 나라에 와서 배운 말가운데서 다른것은 잊어버려도 김치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우리 김치에 맛을 들이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김치를 찾는다고 하는것이였다. 끝이 없을듯싶은 우리 김치자랑이야기까지 들으니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다 알수 없는 통배추초절임의 묘술이 더더욱 신비하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조선의 물과 공기, 조선의 토양에서 자라는 배추라야 통배추김치의 고유한 맛을 제대로 다 살릴수 있다고 하였다. 하다면 오늘의 김치경연에서는 이 땅에서 나는 원자재를 가지고 누가 과연 초절임을 표준으로 하였겠는가. 이에 대한 결과는 통배추김치가 다 익어서 그 맛을 심사할 때라야 알수 있을것이다.

김치의 향미를 돋구는 양념소

이번 경연에서 가정주부들이 양념소를 만드는 방법을 본 심사성원들과 참관자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음식감들을 다루는 솜씨는 전문료리사들에 못지 않았다.

우리와 만난 평양시녀맹위원회의 일군은 매 구역들에서 통배추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녀맹원들이 선발되여 경연에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비록 료리급수와 료리사경력은 없지만 누구나가 우승의 영예를 지닐 자신심에 넘쳐있다고 하는것이였다.

초절임을 끝낸 가정주부들은 날렵한 솜씨로 양념소에 넣을 무우를 손질했다. 흥미있는것은 어떤 가정주부들은 무우를 채칼로 채치는가 하면 누구는 식칼로 얇게 편을 내여 실모양으로 써는것이였다. 무우의 단맛이 어떤 경우에 그대로 보존되는가는 심사결과를 놓고 정확히 알게 될것이라고 심사성원들은 일치하게 말하였다.

중구역 역전동에서 사는 윤인실, 최순복동무들의 양념소만드는 방법은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생선명태와 멸치는 살을 발가내여 분쇄기로 즙을 내였다. 새우젓은 잘 삭은것으로 준비하고 생강과 마늘은 즙을 내지 않고 다져놓았다. 이들은 채친 무우, 버들잎모양으로 편을 낸 배, 5㎝정도로 썬 미나리줄거리, 편을 낸 생밤, 물망을 한 통고추, 다진 생강과 마늘을 함께 고루 버무려 양념소를 만들고있었다. 초절임한 통배추가 맛있게 익자면 생선, 젓갈, 마늘, 생강을 비롯한 여러가지 양념감들이 영양학적요구에 맞게 조화롭게 어울려야 한다고 심사성원들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그런가 하면 대동강구역의 가정주부들은 통고추의 씨를 빼고 더운 물에 불구었다가 즙을 내였다. 여기에 간간하게 절임을 한 명태살과 고리모양으로 썬 낙지, 생강즙, 멸치젓국물을 넣어 양념소를 만들었다.

한편 창광봉사관리국 사계절식당 주방장 김영희, 료리사 박명금동무도 세련된 솜씨로 보기만 해도 맛스러운 양념소를 만들어갔다. 이들은 양념소에 노르끼레한 잣살도 넣었는데 통배추김치가 다 익으면 고소하고 향기로운 맛이 나게 된다고, 김장철은 1년에 한번이지만 사계절 다양한 김치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있다고 식당책임자 김금선동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였다.

려명거리온반집 료리사들인 리미선, 리련금동무들의 솜씨도 여간 아니였다. 김치경연에 처음 참가하지만 여러가지 음식감들의 조화를 잘 맞추어나갔다. 이들은 명태살, 새우젓,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낸 미나리줄거리와 고수, 편을 낸 생신한 배를 양념에 함께 넣어 버무렸다. 통배추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알뜰한 료리사처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고싶은듯 나이지숙한 녀인들이 리련금료리사의 세련된 손동작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어느덧 양념소만들기가 끝나자 여러 봉사단위의 료리사들과 가정주부들이 담그기를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민족료리의 원종장으로 자랑높은 옥류관을 비롯한 이름있는 봉사단위들의 료리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담그기를 진행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듯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료리는 과학이며 예술이라는 참으로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음식인 김치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드는것처럼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료리솜씨와 기술이 요구되는 고급식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옥류관 김치작업반 료리사인 림순영동무는 김치경연에 처음으로 참가하지만 만만치 않은 기둥선수였다. 그런가 하면 료리사 홍혜경동무는 김치경연에서 두번이나 1등을 한 자랑을 가지고있었다. 우리는 양념소를 넣은 배추를 저장통에 차곡차곡 넣는 료리사들의 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얼핏 보아서는 다른 단위의 료리사들과 별로 다른것이 없어보였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었다.

이곳 료리사들은 줄거리의 흰 부위에는 양념소를 좀 많다 하게, 잎이 연한 부위에는 적게 넣고있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도 그림판에 붓으로 섬세하게 색을 먹이는 미술가들을 방불케 하였다. 양념소를 층이 명확히 구별되게 넣는것이 요점인것 같았다. 수첩을 펼쳐들고 무엇인가 부지런히 적는가 하면 사진기의 샤타를 연방 누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서로 경험을 배우고 배워주는 김치경연장의 이채로운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였다.

청류관 료리사들은 배와 무우편을 배추돌기에 깔아주고있었다. 김치국물로는 돼지고기를 삶은 물과 새우젓, 다시마를 끓여서 식힌 물을 고루 섞어 부어넣는다고 하였다.

창전해맞이식당의 료리사들은 김치국물을 따로 붓지 않고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물로 통배추김치를 익혀낸다고 하였다. 이 담그기방법도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이곳 료리사들은 저장통에 통배추김치포기를 다 넣은 다음 양념으로 버무린 우거지를 한뽐정도 채우고 밀봉을 하였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인 김치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적극 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그 가지수가 날로 늘어나고있으며 김치경연, 품평회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들을 통하여 김치가공방법과 기술이 널리 보급되고있다.

상쾌하면서도 독특한 향기, 시원하고 쩡하면서도 감칠맛을 조화롭게 내는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인 김치.

과연 어느 료리사, 어느 가정주부가 통배추김치를 제일 맛있게 담글것인가. 맛심사가 있게 되는 날에 모두가 알고싶어하는 김치경연의 우승자가 비로소 결정되게 될것이다. 맛심사는 이달 30일에 있게 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수정

조국땅우에 펼쳐지는 건설의 대번영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최근 몇해사이에 이 땅우에는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떠서 문명강국에로 나아가는 내 조국의 면모를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평양시만 보아도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평양중등학원과 평양초등학원, 류경안과종합병원과 같은 교육, 보건기관들과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그리고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대상들이 현대적인 건축미를 갖추고 새로 건설되거나 훌륭히 개건되였다.

정문의 문주장식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원형창을 갈라 두개 층으로 형상함으로써 동심에 맞게 형성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보아도 그렇고 로인들의 생활심리에 맞게 건물의 내부와 안뜰을 최대로 편리하게 꾸리고 내외부를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는 형식으로 장식하여 건축미학적으로 훌륭히 완성된 평양양로원도 자기의 특색있는 면모를 가지고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새 세기 주체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시대의 걸작인 과학기술전당은 그 지구전체가 원자구조모형으로 구성되여 양상의 통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있다.

독특한 형식의 53층초고층살림집과 그우에 세운 상징탑을 거리형성의 중심으로 하고 돛배형태의 46층쌍탑초고층살림집을 부중심으로 하여 모든 건물들이 거리면에 굴곡이 나게 배치된 미래과학자거리는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천연색거리로 이채롭게 형성되여있다.

려명거리가 수도의 면모와 풍격을 더 풍만하게 하고있다.

정중성과 상징성을 거리의 기본형성원칙으로 하여 금수산태양궁전방향에는 건물들을 높지 않으면서 보기 좋고 아담하게, 룡흥네거리 영생탑방향에는 초고층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솟구치는 기상으로 형상한것은 이 거리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또한 장산소하천을 막아돌리고 그우에 목란꽃을 형상한 봉사건물로 거리를 축대칭으로, 거리안의 거리로 구성하고 거리전반형성에 복종하면서 매 구획마다 형성상특징이 살아나는 거리,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훌륭히 일떠섰다.

참으로 조형예술의 극치를 이룬 거리이다.

또한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을 따라 옥류교로부터 대동강다리에 이르기까지 펼치여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수도중심부가 웅장화려하게 변모되고있다.

각 도, 군소재지들에서도 수도를 본받아 각이한 기능의 공공 및 생산건물들과 살림집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되고있어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기쁨과 긍지,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나라의 북부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삼지연지구가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고있다.

이미 있던 건축물을 포괄시켜 평면륜곽이 6각형과 두개의 제형으로 대칭되게 확장한 백두산종합박물관을 비롯하여 세부전망계획에 따라 중심부에 사상 및 문화교양거점들이 꾸려지고있다.

이와 함께 자연기상조건에 맞게 지붕물매가 급하면서도 화려하게 단장된 살림집들, 역사들, 감자가공공장 등이 새로 꾸려져 삼지연지구가 더 훌륭히 전변되고있다.

정녕 우리의 건축은 만리마를 탄 기세로 나날이 몰라보게 비약하고있다.

우선 건축의 외부형성에서 혁신이 일어나 새로운 양상들이 끊임없이 태여나고있다. 또한 건축물들이 에네르기절약형, 록색형으로 일떠서고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력자강의 힘으로 이룩한것이다.

이 거창한 전변에는 나라일의 크고작은 중대사를 돌보셔야 하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건축과 관련한 수많은 도면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보아주시고 우리 주체건축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깃들어있다.

몸소 독특한 형성안과 그 세부도 순간에 그려내시여 모두를 감동시키군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무한대한 창조세계는 건축가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고 그들을 문명강국건설의 상상봉에로 이끌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도 미술은 건축의 언어라고 하시며 미술기량을 부단히 높일데 대하여 또다시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문명강국건설념원을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긴 중앙과 지방의 건축설계가들이 지금 한사람같이 명작창작에 떨쳐나서고있다.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찾으신 때로부터 4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명예총장으로, 스승으로 높이 모신 주체건축인재의 양성거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로서의 대학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며 교육 및 첨단과학연구와 설계창작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갈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연구사 박사 부교수 김래렬

황남공업대학에서

교정에 차넘치는 드높은 체육열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쉬는날이나 명절날 같은 때 배구, 탁구, 국방체육경기를 비롯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체육경기와 체육유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열기띤 응원소리에 이끌려 황남공업대학으로 들어섰다. 대학운동장에서는 축구, 배구, 롱구를 비롯한 체육경기들이 치렬하게 진행되고있었다.

백열전을 이룬 경기도 볼만 했고 대학구내에 번듯하게 꾸려진 이채로운 체육시설들도 눈길을 끌었다.

잔디를 입힌 운동장이며 훌륭하게 꾸려놓은 배구장과 롱구장, 평행봉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기재들…

우리에게 이곳 청년동맹일군인 로경일동무는 대학에서 11월 체육의 날을 계기로 축구, 롱구, 정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학부별체육경기를 조직하였다고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이 대학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열의를 고조시켜 교육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게 하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학부별, 학급별체육경기를 정상화하기 시작하던 때를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대학의 체육사업은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해마다 도에서 진행되는 대학별체육경기들에서도 항상 뒤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대학책임일군들의 생각은 많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대학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자고 하여도 대중체육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일군들은 대학의 체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대학에서는 강의가 끝난 다음 오후시간마다 학부별, 학급별체육경기들을 자주 조직하는것은 물론이고 주요명절과 기념일때마다 쭉쭉 체육경기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하니 집단의 체육열의가 나날이 높아갔고 명절분위기도 한결 돋구었으며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가슴속에는 자기 대학을 더욱 빛내여가려는 마음이 소중히 자리잡게 되였다.

대학에서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체육열의를 끊임없이 고조시키면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이 나날에 대학의 면모는 몰라보게 일신되였고 학생들의 학업성적도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로경일동무는 이제는 대학의 체육수준이 몰라보게 올라갔다고, 올해에 도적으로 진행된 대학별체육경기에서 여러 종목이나 우승하였다고 자랑삼아 말하는것이였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체육경기들이 절정을 이루고있었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는 식료공학부와 건설공학부사이의 배구결승경기였다.

기묘한 처넣기가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지는 광경이며 재치있는 살짝공으로 또 한점 올리는 장면도 볼만 하였다. 강한 타격이 성공될 때마다 터져오르는 환성과 요란한 박수소리가 온 구내를 들었다놓군 하였다.

관람자들의 이목을 더욱 모은것은 강한 타격으로 점수를 올리는 식료공학부의 타격수 곽영남학생이였다. 알고보니 그는 공부도 잘하는 최우등생이였다.

우리와 만난 곽영남학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체육활동을 정상화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막 힘이 솟습니다.》

이런 드높은 체육열의, 랑만과 희열이 차넘치는 대학에서 훌륭한 교육사업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은 응당한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주령봉

가구경량화용 벌집형종이속심

세계적으로 목재를 절약하고 가구의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해 벌집형종이속심을 만들어 각종 가구와 건구관생산에 대대적으로 리용하고있다.

각종 가구와 건구관의 속심재료로 나무를 쓰지 않고 벌집형종이속심을 리용하면 가구의 경량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귀중한 목재를 수많이 절약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생산과정을 보면 습기견딜성이 보장된 종이를 리용하여 련속적인 공정에서 풀칠을 진행하고 절단한 다음 층쌓기를 진행한다. 계속하여 일정한 두께로 층쌓기한 종이무지를 가열압착프레스에 넣어 일정한 시간 가열압착하고 필요한 높이로 절단하여 6각형모양이 되도록 늘구기 및 고정을 시킨 후 가구와 건구관의 속심재료로 리용한다.

지난 시기에는 련속적으로 풀칠을 진행하고 절단, 층쌓기 등을 진행하는 공정에서 접착제에 대한 요구가 높고 실수률이 낮으며 설비제작에 많은 자금이 드는것으로 하여 일부 단위들에서 벌집형종이속심을 수입하여 가구생산에 리용하고있었다.

가구경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뜻을 새겨안고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은 세기가 높은 벌집형구조를 가진 종이속심개발에 달라붙어 성공하였다.

벌집형종이속심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우리 나라의 원료를 리용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풀칠 및 층쌓기, 압착방법을 새롭게 착상한데 이어 여기에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설계제작하였다. 벌집형종이속심을 넣어 만든 건구관은 나무를 속심으로 리용할 때보다 훨씬 가벼울뿐아니라 누름세기가 보장되고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문제료와 벽판재료 등으로 리용한다.

벌집형종이속심을 가구생산에 리용하면 생산원가를 훨씬 낮추고 수많은 목재를 절약할수 있으며 가구의 경량화를 실현할수 있다.

현재 대학에서 개발한 가구경량화용 벌집형종이속심은 여러 가구생산단위들에 도입되여 호평을 받고있다.

실리가 큰 벌집형종이속심제조방법은 올해에 발명으로 등록되였다.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부부장 김일철

유명한 지방특산물－성천약밤

우리 나라에서 밤은 먼 옛날부터 사람들의 식생활에 리용되여왔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밤은 감, 대추, 배와 함께 대표적과일의 하나로서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있었으며 그 수확량도 많았다.

우리 나라 3대고려의학고전의 하나인 《동의보감》에서는 밤은 사람의 기를 돋구고 위장을 든든하게 하며 배도 고프지 않게 하는데 과일중에서도 가장 좋은 과일이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성천과 양덕, 덕천, 중화, 순천, 강동, 강서, 남포 등에서 밤이 많이 생산되였는데 그중에서 성천지역의 밤은 다른 지역의것보다 그 맛과 약리적효과가 더 좋은것으로 하여 이름났다.

성천약밤은 알이 작으며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단백질, 기름질, 당질 등 사람에게 좋은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유명한 지방특산물이다.

성천약밤나무의 잎은 길둥근 버들잎모양이다. 꽃은 6월에 피며 밤알은 9월 하순~10월 상순경에 여문다.

밤송이는 둥글고 작다. 한송이에 밤알이 보통 3알씩 들어있으나 1알 또는 2알 들어있는것도 있다. 한알의 질량은 평균 7~8g이다.

밤알의 끝은 뾰족하다. 밤알의 겉껍질은 진한 밤색이며 윤기가 돈다. 속껍질은 얇고 잘 벗겨진다. 살은 누른색이며 달다.

성천약밤을 섞어 지은 밤밥이 유명하였다.

이밖에도 옛 기록인 《규합총서》에는 밤으로 만든 음식들로서 밤떡, 황률다식, 밤주악 등이 수록되여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최효일

새 기술소식

발전하고있는 남비정련기술

자료에 의하면 여러 나라들에서 남비정련기술을 발전시켜 강질을 더욱 높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진과학기술이라면 어느 나라의것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비정련기술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쇠물의 조성과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정련공정을 제강로안에서가 아니라 남비에서 진행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제강로들에서 장입물을 용해시킨 다음 쇠물의 조성을 맞추고 온도를 균일하게 하며 탈류, 탈린, 탈가스의 정련공정까지 진행하자면 야금시간이 길어지고 에네르기소비가 늘어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것이 남비정련기술이다.

최근에 강질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남비정련기술은 정련효과를 높여 에네르기소비를 줄이고 아르곤가스의 취입공정을 개선하여 강질을 높이면서도 생산성을 더욱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

우선 다원계합성슬라크형성제들을 받아들여 정련효과를 높이면서도 전력소비를 줄이고있다.

일반적으로 제강로안에서 용해한 쇠물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쇠물남비에 슬라크형성제를 첨가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다원계합성슬라크형성제는 여러가지 슬라크형성제들을 일정한 비률로 배합하여 만든것으로서 그 조성은 강종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정련공정에서 슬라크형성제의 조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면 짧은 시간에 백색거품슬라크를 형성시켜 전호의 잠금효과를 높일수 있고 남비안불임의 침식을 감소시키며 탈류, 탈산, 탈가스 및 개재물흡착작용을 촉진하므로 쇠물의 정련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아르곤가스바닥취입공정을 최량화하는 방법으로 남비에서 쇠물의 조성과 온도를 균일하게 하여 강질을 높이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물모형방법을 리용하여 아르곤가스취입위치와 취입량을 선정하였다면 최근에는 아르곤가스취입에 의한 쇠물의 류동상태를 콤퓨터로 모의하여 교반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있도록 취입위치를 정하고있다.

이밖에도 남비정련공정에 전극자동조종체계를 받아들여 전력소비를 줄이고 정련효과와 생산성을 훨씬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공작용재료 색진흙

최근 고려성균관 연구집단에서는 공작용재료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와 생산공정에 의거하여 만들수 있는 색진흙을 개발하였다.

이 색진흙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재료로서 교육부문을 비롯하여 그 리용분야가 다양하다.

우선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학생들의 지능계발과 교육을 위한 공작재료로 리용할수 있다.

유치원어린이들이 지능높이 시간에 이 색진흙을 가지고 빚기를 하면서 무엇이든 만들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하며 창조력, 상상력 등을 키워주어 아이들의 두뇌를 단련시킨다.

또한 소학교 도화공작과목과 초급중학교 미술과목에서도 이것을 리용할수 있다.

이뿐아니라 공예, 산업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전문창작기관 창작가들의 창작용, 모의용으로도 리용할수 있다.

실례를 들면 가구 및 실내장식에서 조형물들에 대한 형태적, 립체적형상을 생동하게 할수 있다.

이 색진흙은 사용과정에 손에 묻지 않고 색표현을 마음대로 할수 있으며 점착이 잘되고 마른 후에도 잘 떨어지지 않을뿐아니라 색변화가 없고 다시 리용할수도 있다.

지금 이 색진흙은 질이 좋고 인체에 주는 해독작용이 전혀 없는것으로 하여 이것을 리용하는 교육단위들과 전문창작기관들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

고려성균관 실장 리원영

독자의 편지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10여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특류영예군인인 저를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해온 한 의료일군이 있습니다. 그는 옥류아동병원 순환기내과 리병실동무입니다.

영예군인들을 도와주는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바친 그의 지성에 대해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저의 생일이 되면 대동군에까지 찾아와 병사시절 그때처럼 전투적으로 살라고 고무도 해주고 새로 나온 노래집과 생활필수품도 안겨주면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돌봐준 리병실동무입니다.

제가 입원치료를 받고있을 때에는 보약도 마련해주고 별식을 해가지고 찾아와 저를 정성껏 돌봐주었으며 저의 아들이 다리를 잘 쓰지 못한다는것을 알고는 직접 병원에 데려다가 온갖 성의를 다해 치료하여 다시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를 리병실선생님의 친척으로 알고있던 다른 사람들은 후에 그 사연을 알고는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리병실동무와 같은 훌륭한 인간들이 많은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습니다.

대동군 판교리 9인민반 김영국

미국과 그 주구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추종하는 매국역적행위

트럼프패거리들이 완전히 분별을 잃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테로지원국》재지정을 끝끝내 강행발표하는 날강도적인 폭거를 저지른 백악관의 늙다리미치광이는 북은 물론 그와 거래하는 나라들과 개별적인물들에 대한 최고수준의 추가제재와 압박조치를 련속 취할것이라고 줴쳐댔다. 미국무성과 국회에서 《최대의 압박》이니, 《철저한 차단》이니 하는 대결악담들이 울려나오는 속에 미재무성것들은 우리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깡그리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죄악으로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분별없이 헤덤비고있는것이다.

괴뢰들은 지금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테로지원국》재지정폭거에 대해 《지지환영》한다느니, 《시기적절》하다느니 하는 얼빠진 수작을 내뱉으면서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 한편 《북의 반발과 기습도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고 분주탕을 피워대고있다. 그야말로 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동족대결광신자들만이 벌려놓을수 있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가물에 단비나 만난듯이 쾌재를 올리며 미국상전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극구 편승해나서고있는 괴뢰들의 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괴뢰들이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것은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고 해치기 위한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의 강국건설을 가로막고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는것은 괴뢰들이 추구하고있는 변함없는 속심이다. 이로부터 괴뢰들은 지금껏 《북핵, 미싸일위협》에 대해 요란히 광고하면서 그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극성을 부렸다. 괴뢰들은 외세와의 공조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 우리가 주저앉을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는 물론 합법적인 우주개발활동에 대해서까지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며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의 맨 앞장에서 지랄발광하였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뼈속까지 꽉 들어찬 괴뢰들은 《과거와는 다른 고강도제재》니, 《강력한 유엔〈제재결의〉채택》이니 하면서 외세의 옷자락을 붙들고 반공화국제재를 강화해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괴뢰들은 국제적인 제재놀음으로도 모자라 《독자제재》소동에도 기승을 부리였다. 리명박패당이 6.15의 《옥동자》로 불리우며 내외의 관심속에 지속되여온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5.24조치》를 구실로 북남교류와 협력의 대문에 빗장을 질렀다면 박근혜패당은 그 누구의 《돈줄》을 끊고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고아대면서 북남관계의 마지막명줄이였던 개성공업지구의 가동마저 전면중단시키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현 남조선집권자도 선임자들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남조선집권자는 력대 괴뢰대통령들중 제일먼저 미국으로 달려가 《북핵고도화》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대결망발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으면서 《공동성명》이라는데 《최대의 대북제재압박》을 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것을 조아박았다. 이로써 그는 미국상전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적극 추종하겠다는 것을 맹약하였다.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대북정책》을 들고나온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며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한 포악무도한 《제재결의》가 조작되자 그것을 선참으로 환영해나서는 망동을 부리였는가 하면 얼마전에는 상전의 제재망동을 본딴 《대북독자제재안》이라는것까지 발표하였다. 이것은 대미추종과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민족앞에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지른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전철을 밟는 매국역적행위이다.

지금 괴뢰들은 저들의 매국반역적망동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자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을 그 누구를 《대화》에로 유도하기 위한것으로,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으로 광고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갖 궤변에 불과하다. 괴뢰들이 노리고있는것은 《제재압박의 강화》를 통한 《북핵문제해결》의 간판밑에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해치는것이다. 괴뢰들이 그 무슨 《대화》니, 《북핵위협》이니 하고 떠벌이고있는 것은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동족을 압살하려고 미쳐날뛰는 저들의 반민족적정체를 가리우고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의 도수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파렴치한 술책이다. 《북핵포기》와 《체제변화》라는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광분하는 괴뢰들이야말로 쓸개빠진 역적무리이다.

괴뢰들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은 무지스럽고 대세도 판별할줄 모르는 얼간망둥이들의 가소로운 추태이다.

괴뢰들은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에 미친나머지 초보적인 사고기능마저 마비되였다. 그렇지 않다면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소동이 부질없는 헛수고라는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할수 있는가.

우리 공화국은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야만적인 초강도제재속에서도 나날이 비약하고 발전하고있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모습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테로지원국》재지정놀음까지 벌리며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지만 깡패국가의 그 어떤 전횡도, 그 어떤 제재도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대한 전통을 빛내이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당해낼수 없다.

현 괴뢰집권세력은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뛰다가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한 선임자들의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이 집권초기부터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마지막순간까지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박에 광분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취약성과 패배자의 가련한 몰골만 드러내놓았다.

괴뢰들은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저들의 대결망동이 어떤 후과를 빚어내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괴뢰들이 《대북제재》에 기승을 부리며 그 무슨 《제재효과》를 기대하는것은 바다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것과 같은 허무맹랑한짓이다.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반대해나서는 역적무리의 운명은 언제나 비참한 법이다.

트럼프패당의 《테로지원국》재지정폭거에 맞장구를 치며 반공화국제재압박에 갈수록 피눈이 되여 날뛰는 괴뢰패당은 매국반역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심 철 영

깡패국가의 날강도적인 협박외교

불변의 병진로선침로를 따라 기운차게 돌진하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적인 힘앞에 질겁한 미국이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장관 틸러슨은 워싱톤에서 30여개 아프리카나라의 외교당국자들과 무역안보관련회의를 벌려놓았다. 여기에서 틸러슨은 아프리카나라들이 우리와의 외교관계의 급을 낮추고 경제관계를 단절하라고 강박하였다. 이자는 《북이 현 로선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대북압박작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엔《제재결의》를 전적으로 리행하고 《북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제지품을 물고 고아댔다. 그야말로 깡패국가의 협박외교, 강박외교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틸러슨의 날강도적인 처사는 우리의 핵능력고도화를 막을 방법이 더는 없게 되여 극도의 절망과 좌절감에 빠진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틸러슨이 아프리카나라들에까지 손을 뻗치며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고 피대를 돋군것은 세기를 이어온 조미핵대결전, 우리와의 1대1 대결에서 패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북핵, 미싸일위협》을 운운하며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우리를 압살하기 위해 자기 력량은 물론 추종세력들까지 총발동하며 제재압박에 미쳐날뛰여왔다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하지만 그 장기간의 대결에서 패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우리를 해치려다가 오히려 저들의 맥만 뽑고 이제는 비맞은 수닭꼴이 되고말았다.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에서 얼마나 힘이 빠지고 궁색해졌으면 지금껏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아프리카나라들에까지 손을 내밀었겠는가. 그야말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틸러슨이라고 하면 그래도 미국의 외교를 대표하는자인데 너무도 설익었다. 평등과 호혜는 외교의 초보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악의 제국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호통치는것이 외교로 되고있다. 어제는 태평양의 자그마한 섬나라에 큰소리를 치고 오늘은 아프리카나라들에 대고 《북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협박하고있다. 이것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으로서 그만큼 미국이 궁지에 몰리고 우리를 어찌지 못해 허둥대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의 국가핵무력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 미국을 상대로 한것이다. 아프리카나라들이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해 위협을 느낄 하등의 리유가 없다. 더우기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밑에 신음하며 억압당하는 아프리카나라들에 주체의 빛발을 뿌려주고 그 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에 사심없는 원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주었다. 이런 우리에 대해 아프리카나라들이 적의와 원한을 품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프리카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유엔《제재결의》리행을 강요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처사이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노예사냥으로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을 미국으로 끌고가 제 마음대로 부려먹던 때인가. 틸러슨의 오만무례한 망동은 시대착오적인것으로서 세계적인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는 미국식강권과 전횡, 파렴치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미국은 덩지큰 나라이든 작은 나라이든, 아시아이든 아프리카이든 관계없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저들이 때려모는대로 움직이는 마소로 착각하고있는 모양인데 가소롭기 그지없다. 지금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테로를 감행하고 도처에서 나라간, 종족간 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와 피난민들을 발생시킨 미국에 대한 저주와 원한으로 치를 떨고있다.

트럼프가 아시아나라들을 돌아친데 이어 틸러슨을 내몰아 대조선포위망을 아프리카에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나라들을 저들의 반인륜적죄악의 공범자로 만들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는데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 주권국가들을 저들의 하수인으로 여기며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마구 끌어들이는 미국의 범죄적망동은 진보적인류의 반대배격에 부딪쳐 랑패와 쓴맛만 보게 될것이다.

미국이 제아무리 온 세상을 들쑤셔대며 발악해도 자주의 성새, 인류의 표대로 빛을 뿌리며 최후승리에로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은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조 남 수

미친개무리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 무섭게 치솟는다

멸적의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미친개는 죽어자빠질 때가 다가올수록 더 악착스럽게 짖어대며 덤벼든다더니 트럼프패당의 발광이 꼭 그것을 방불케 한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해치려는 흉악한 속심을 또다시 드러내놓은 트럼프패당의 《테로지원국》재지정놀음은 우리 탄광 로동계급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늙다리정신병자 트럼프의 추태가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 미제가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걸핏하면 제재조치를 취하며 사면팔방으로 봉쇄망을 좁히였지만 그때마다 우리 조국은 한단계 또 한단계 더 높이 비약하였다. 원쑤들의 발악적인 압살공세를 짓부시고 더 좋은 미래, 더 밝은 래일을 앞당겨오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도 더한층 억세여졌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도 우리의 투쟁전통이며 변함없는 기풍인 자력자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왔으며 그 보람찬 투쟁의 덕을 크게 보고있다. 지금 우리 소대는 더 큰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얼간망둥이 트럼프는 똑똑히 알아두라.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으로도 우리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을 흔들수 없다는것을.

트럼프패당이 아무리 발광해도 맥만 뽑고 제풀에 주저앉아 수치밖에 당할것이 없다. 미제가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을 해치려고 악을 쓰며 헤덤비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회주의제도를 철옹성같이 보위하며 주체혁명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하여줄뿐이다.

우리들은 원쑤 미제의 턱가슴에 맞구멍을 내는 심정으로 멸적의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만리마대진군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올릴것이다.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문천탄광 승리갱 소대장 리정열

흉물스러운 낯짝을 찢어버리는 심정으로

《무능아》, 《정신병자》로 락인된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따위가 감히 우리 공화국을 《살인정권》으로 매도하며 《테로지원국》재지정폭거를 감행했다니 치솟는 분노를 억제할수 없다. 우리가 틀어쥔 이 낫으로 세기의 미치광이 트럼프의 흉물스럽고 쭈글쭈글한 상통을 당장 찢어버리고싶은 심정이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기 위한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천인공노할 생화학테로흉계가 적발되여 세상을 경악시킨것이 바로 얼마전의 일인데 악의 근원, 테로의 총본산인 미국이 뻔뻔스럽게 우리에 대해 《테로지원국》재지정놀음을 벌려놓았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짓인가.

개들이 아무리 짖어대도 행렬은 나간다는 말이 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해 제재를 한다, 《테로지원국》감투를 씌운다 하고 아무리 미친 지랄병증세를 드러내며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해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확신하며 이미 선택한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피묻은 이발을 드러내며 제 죽을줄도 모르고 길길이 날뛰는 승냥이무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우리 인민이 아니다.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가려보고 헤덤벼야 한다.

백악관의 늙다리깡패 트럼프는 명심하라.

우리는 우리 공화국을 함부로 모독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미친개처럼 날뛰는 네놈의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며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야말것이다.

농업전선을 굳건히 지켜선 전초병들인 우리들은 더 많은 쌀을 생산하여 주체의 핵강국을 빛내여나감으로써 트럼프것들이 부아통이 터져 제김에 즉살하게 만들어놓겠다.

숙천군 검흥농장 작업반장 양길남

죄악의 대가를 받아낼것이다

더러운 털부숭이손을 우리 민족의 피로 물들인 미국놈들이 도대체 무슨 체면에 우리에게 《테로지원국》감투를 씌우며 지랄발광인가. 걸고드는 꼴이 너무도 유치하고 파렴치해서 말이 다 안나간다. 세계에서 못된짓은 도맡아하며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테로를 일삼고 더우기 우리 인민에게 수십년세월 가장 악랄한 국가테로를 감행해오는자들이 도리여 제편에서 《테로》나발을 불어대고있으니 이런 뻔뻔스러운 날강도무리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피발린 양가죽을 뒤집어쓰고 평화의 사도처럼 행세하는 미국의 역겨운 행실에 막 신물이 난다.

지금 우리 체육단 감독, 선수들은 가증스러운 미제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죄악의 대가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자고 웨치며 무쇠주먹을 흔들고있다.

미제는 지금껏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할줄만 알았지 그 맛이 어떠한것인지는 아직 체험하지 못하였다. 미제호전광들이 남조선에 핵항공모함이나 핵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같은것들을 들이밀며 허장성세하였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천둥소리에 놀라 소란스럽게 짖어대며 이리저리 들고뛰는 동네개들을 보는듯 했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날치는 침략자무리에게 단호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빈말을 모른다. 한다면 하고 일단 답새기면 뼈도 추릴수 없게 무자비하게 철저히 짓뭉개는것이 우리의 기질이고 본때이다.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헐뜯는 특대형도발행위를 감행한 미국의 악당들은 절대로 발편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대성산체육단 감독 김봉철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

지금 우리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신성한 우리 조국에 《테로지원국》감투를 씌운 트럼프패당의 망동에 증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통 정신병자들이 살판치는 인간오물장이라는것은 잘 알고있다. 하지만 입만 벌리면 전부 허튼말만 주어섬기고 하는짓은 온통 미치광이짓뿐인 트럼프따위가 어떻게 대통령노릇을 하는지 정말 놀랍다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이번에 트럼프놈이 우리에 대해 그 무슨 《살인정권》이니, 《테로지원국》이니 하고 고아댔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련한 약자의 애달픈 비명소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제 집안이 온통 악의 소굴, 인권의 불모지인데 그 주제에 도리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입에 담지 못할 험담으로 마구 헐뜯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트럼프패당의 망동은 오히려 우리 교육자들이 미제의 위선적이며 파렴치한 본성을 학생들에게 잘 알려줄수 있게 하는 생동한 교양자료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빛나게 구현하시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을 떠나 한시도 살수 없다고 하면서 이 행복의 요람을 해치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가슴을 끓이고있다.

나는 우리 학생들모두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는데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겠다.

미제가 아무리 발광해도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절대로 해칠수 없다.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 분과장 김영숙

천추의 한을 풀고야말리

뒤골목의 깡패처럼 남을 해치는것쯤은 예사롭게 여기는 늙다리불망나니 트럼프가 감히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테로지원국》으로 모독하며 지랄발광하였다니 피가 끓어올라 견딜수가 없다.

인디안들의 가죽을 벗겨 팔고사던 인간백정들, 지난 조선전쟁시기 신천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몸서리치는 살인방법을 다 동원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인두겁을 쓴 승냥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할아버지, 할머니세대의 천추의 한이, 미제살인귀들에 대한 끓어번지는 증오가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가슴에 사무쳐있다.

트럼프에게 묻건대 온 세상 사람들이 테로에 대해 말할 때 제일먼저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을 떠올린다는것을 알기나 하는가. 미제에 의해 자주권을 짓밟히고 분쟁과 살륙의 암흑천지로 화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이 국제테로왕초 미국에 저주를 퍼붓고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이 《테로지원국》재지정놀음으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를 압살할수 있다고 망상하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트럼프야말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망녕든 늙다리, 현대판 돈 끼호떼가 분명하다. 이런 얼뜨기, 정신병자가 대통령노릇을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불쌍한가.

트럼프패당이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해치려고 미친듯이 덤벼들고있는 지금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학과학습에 더욱 열중하여 주체의 내 조국을 세계만방에 빛내일 높은 목표를 기어이 달성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만일 미제가 기어이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펜을 총으로 바꾸어쥐고 용약 달려나가 침략자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하고 피맺힌 원한을 풀고야말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배금성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 단장

아시아의회회의 제10차총회 전원회의에서 연설

아시아의회회의 제10차총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뛰르끼예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리종혁동지가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단장은 아시아인민들이 수세기에 걸친 서방렬강들의 식민지지배의 흔적을 털어버리고 오늘 평화롭고 번영하는 아시아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시아대륙에 대한 렬강들의 변함없는 지배야망과 침략적인 간섭책동으로 말미암아 동북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지역의 평화와 발전은 의연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있으며 특히 미국의 트럼프행정부출현이후 조선반도에서 날로 격화되는 긴장상태는 전세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불과 두달전 세계는 미국통수권자가 유엔무대에서 우리의 정권교체나 제도전복을 뛰어넘어 한 주권국가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고 공공연히 줴치는것을 목격하였다.

얼마후에는 미국의 핵전략폭격기편대들과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이 련이어 조선반도상공과 주변수역에서 사상 류례없는 핵선제타격연습을 벌려놓았다.

우리를 겨냥한 미국의 핵전쟁위협이 랭전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위험천만한것이라면 대조선제재책동 또한 극히 무모하고 야만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은 올해에만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불법무법의 가장 가혹한 대조선《제재결의》들을 3차례나 조작해냈으며 횡포무도한 《단독제재》놀음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미국이 제재에 《평화적문제해결》의 외피를 씌우고있지만 핵위협으로 굴복시키지 못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립질식시키려는 반인륜적범죄의 성격을 결코 가리울수 없다.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있어서 대비도 되지 않는 조선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덩지큰 날강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온갖 군사적수단과 초강도제재를 불사하면서도 우리의 《위협》을 떠드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력사는 아시아대륙의 동쪽관문인 우리 나라의 힘이 약할 때 조선반도가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되고 아시아대륙전체가 전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핵을 틀어쥠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해보려는 미국의 야망이 분쇄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수호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폭제의 핵을 제압하는 정의의 보검이며 우리에 대한 침략과 도발에 가담하지 않는 한 아시아와 세계의 어느 나라도 우리의 《위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힘의 만능론, 핵무기만능론을 제창하고있는 미국과는 오직 핵으로 힘의 균형을 이룩하여 맞서야 한다는것이 전체 조선인민의 단호한 선택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이로 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100년을 제재한다고 해도 위대한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절대로 놀래우지도 굴복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의 기치, 자력갱생기치드높이 자기의 힘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과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이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고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다.

계속하여 그는 자주와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아시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단합할 때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보장》이라는 본 총회의 주제가 반드시 현실로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그는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이란과 수리아,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외무성

조선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국을 비난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가 23일 기자회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국의 날강도적인 행위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의 그러한 행위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데 절대로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서 쌍무 및 다무적형식의 외교회담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고 사태가 극한점에 이르지 못하도록 모든것을 다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의 일부 정치가들은 사태를 극한점에로 몰아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의 행위로 어떤 차후조치들이 취해지겠는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는가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국의 행위는 그 어떤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법이며 또 하나의 선전깜빠니야에 불과하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범죄반대투쟁

쓰르비아경찰이 20일 전국적인 범죄소탕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베오그라드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부정부패, 탈세, 직권람용, 마약밀수 등의 혐의를 받은 약 150명이 체포되였으며 약 4kg의 헤로인과 코카인을 비롯한 각종 마약이 압수되였다. 한편 파키스탄의 반마약당국은 이슬라마바드국제비행장에서 최근 4일동안에 2차례에 걸쳐 2명의 마약밀수업자를 붙잡았으며 1.7kg의 마약을 몰수하였다.

이란에서 반마약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보성은 남부 케르만주에서 3개의 국제마약밀매조직이 숙청되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9명의 밀매업자들이 체포되고 2.5t에 달하는 여러종의 마약, 다량의 무기와 탄약, 7대의 차량이 압수되였다 한다.

브라질경찰이 21일 리오 데 쟈네이로주의 중부와 서부도시들에서 대규모마약소탕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8명의 마약밀수업자가 소멸되고 60여명이 체포되였으며 많은 량의 마약과 무기 등이 압수되였다.

에짚트에서 테로공격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 발생

에짚트의 시나이반도 북부지역에서 24일 테로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엘 아리쉬시부근에 있는 사원밖에서 테로분자들이 폭발물을 터뜨린 다음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다.

이로 하여 235명이 목숨을 잃고 109명이 부상당하였다.

전국에 3일간의 애도기간이 선포되였다. 에짚트대통령은 텔레비죤방송연설에서 테로분자들의 만행을 단죄하고 사회적안전과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무력증강책동

미국이 동유럽에 침략무력을 계속 증강하고있다.

21일 벌가리아국방성이 밝힌데 의하면 미국이 나토의 군사훈련과정에 250명의 미군병력, 《에이브람스》땅크와 보병전투차량을 비롯한 약 50대의 전투기술기재들을 벌가리아령토에 전개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그와 같은 무력증강책동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

집없는 미국청년들

미국에서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최근 시카고종합대학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5살미만 청년들가운데서 약 350만명이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자거나 방황하고있다고 한다.

범죄 성행

일본에서 살인, 방화 등 범죄행위가 우심해져 주민들이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있다. 17일 이 나라 법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각종 범죄행위로 체포된 범죄자수가 2만 460여명에 달하였다 한다.

성폭행 우심

영국 런던시에서 성폭행범죄가 우심해지고있다. 최근 시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 164명의 택시운전사들이 손님들에게 성폭행을 감행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71187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